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newstarealty.com  
Diane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ISSN 1554-6942

## 전신마비 부인 17년 병간호 남편 채식암 말기 판정

### 도요타 자동차 사고로 전신마비 최혜연씨 또 하나의 슬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았다. 도요타 자동차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부인을 뒷바라지 하던 최형철 씨(60)의 정신은 여전했지만 그의 몸은 견뎌내지 못했다. 최형철 씨는 지난 9월 19일 매스 제너럴 호스피탈(MGH)에서 채식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저곳을 눌러 보며 아프냐고 묻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씩 말기암 환자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최 씨가 몸에 이상을 느낀 것은 지난 9월 초였다. 소변의 색깔이 갈색으



채식암 말기 판정을 받은 최형철씨

전도양양했던 유학생의 삶이 지난 97년 교통사고로 파탄난 이 가정에 더 이상의 충격은 없는 것일까. 짧으면 1달 길면 1년이란 사형선고를 받은 최형철 씨였지만 전화 목소리는 밝았다. 마치 남의 일처럼.

“참 이상한 것이요, 마지막 단계라 하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아픈 곳도 없고 부은 것도 없고... 참 이상하죠?”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곳

로 변했다. 그 이후 황달 현상이 나타났다. 몸무게도 10파운드나 줄었다. 결국 매스제너럴 병원의 전문의를 찾아 여러 차례 CAT 스캔을 찍고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면서 채식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97년이라 남편이나 자녀들의 도움 없이는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생활을 지내온 최혜연 씨는 “정신이 하나도 없다. 큰 딸 다인이는 가끔씩 울기도 한다. 제가 죽어야 하는데... 제가 살아서 뭐하겠어요?” 라고 힘없이 말했다.

최혜연씨는 남편의 피검사에서 5대 영양소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도요타와의 소송에 매달리며 받은 스트레스와 결국 제대로 먹지 못한 영양실조가 겹쳐져서 생긴 병이 아닌가 싶다” 고 밝혔다.

최혜연 씨(52)는 지난 97년 구입한 지 1년도 안된 도요타 차량을 타고 90번 도로를 타고 운전하다 차량이 전복



## 전주 명인 솜씨 이은 비빔밥집 보스톤 탄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양지머리 육수로 코팅된 밥알과 갖가지 고명이 늦그릇에 정갈하게 담겨 나오는 전주비빔밥에는 전주 전통의 손맛이 고스란히 베어있는 듯하다.

지난 1일 알링턴에 새로 개업한 우리(WooRi)는 전주 전통방식을 고집한 비빔밥 전문 한식당이다. 물론 외국 손님들을 위해 한국의 길거리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japantravelinfo.com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MORTGAGE MASTER**

#1 Lender in Massachusetts!  
**EXCELLENT RATES**  
**LOW CLOSING COSTS**  
**ADVICE YOU CAN TRUST**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O859995

Call me today for a free pre-approval!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금주의 매물**

**Rental Listings**

- 52 River St, Newton, 3 beds, 1.5 baths, 2 cars garage, \$2,900
- 701 Hammond St #1 Brookline, 3 beds, 1 bath, 1 parking, gas and electric 포함, \$2,800
- 116 Burkhal St #0 Weymouth, 2 beds, 1 bath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O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 설상가상, 덜컥 채장암 최형철씨의 안타까운 사연

▶▶1면에 이어서

되는 사고를 당해 전신마비가 됐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유학 후 엔지니어로 일하던 최형철씨는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다. 최혜연씨의 병수발은 물론 당시 어린 자녀들을 뒷바라지해 막내까지 대학에 진학토록 키웠다.

최혜연씨는 비록 도요타와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현재 도요타측 변호사의 위증을 근거로 현재 새로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17년째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남편은 소송 서류를 불러 주고 예일대를 졸업한 큰 딸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두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휠체어에 앉아 움직일 수 있는 최혜연씨는 남편이 병원에 다니면서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식사를 챙기던 남편마저 점차 몸져 누우면 앞길이 막막하다. 최혜연씨의 사연은 보스톤 코리아

를 비롯해 추적 60분에도 방영이 됐다. 지난 2010년 도요타 청문회 당시 미 공화당 대 버튼 상원의원이 최혜연 씨의 사연을 거론하며 해명을 요구기도 했다.

최형철 씨는 9일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다. 최형철 씨는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되돌릴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갔지만 더 이상 진전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최형철씨와 최혜연 씨 부부는 아픔을 잊어버렸거나 아픔을 표현하는 것을 잊어버린 듯하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동요가 없다. “모르겠어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한인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다. 최형철 씨의 주소는 Choi, H.C. 50 Memorial Road 18C, Someville, MA 02145 다.

## ‘도움주실 분들’

최형철 씨 주소 :

Choi, H.C.

50 Memorial Road 18C,

Someville, MA 02145

# 뉴잉글랜드 학교 총기·폭탄 이메일 협박

## 불안함 속에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 점점 커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폭탄이나 총기 등의 협박 이메일을 받아 수업이 중단되는 사건이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AP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와 뉴햄프셔, 코네티컷 주 소재의 총 10여군데의 학교들이 지난 몇 주 동안 협박 전화 및 이메일을 받았다. 매사추세츠 학교감독협회 토마스 스캇(Thomas Scott) 이사는 “이런 유형의 협박 메일은 보통 시험기간인 6월경에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며 “개학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잦은 협박 메일을 받는 것은 굉장히 의아한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1일 매사추세츠 배드포드와 뉴햄프셔 배드포드의 두 고등학교가 협박 전화를 받고 수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날 코네티컷의 샌디훅 초등학교(Sandy Hook Elementary School)는 전화로 폭탄 위협을 받은 후 전교생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다. 2년 전 총기난사로 26명의 아이들과 교사가 목숨을 잃은바

있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욱 아찔한 하루였다. 샌디훅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2년 전의 악몽이 현실로 일어나는 줄 알았다”며 “이런 위험한 장난을 친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다.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고 전했다.

하버드 대학교 일부 학생들도 지난 4일 금요일 오후 4시 44분에 “토요일(5일) 밤 11시에 학교로 찾아와 모두 쏘고 한 명 한 명 죽이겠다” 는 협박 이메일을 받았다.

하버드 대학 학보 ‘크림슨’ 에 따르면 서툰 영어로 쓰여진 이 이메일은 “찢어진 눈(slit-eyes)” 을 언급하며 인종차별적인 메시지를 포함했다. 실제로 협박 이메일을 받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시아계 여학생들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협박 이메일에 대한 수사를 벌인 하버드 대학 경찰서 대변인 스티븐 카탈라노(Steven Catalano)는 다음날 오전 9시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고 발표했지만 케임브리지 경찰과 연방수사국, FBI가 함께

수사에 나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다행히 그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동일한 이메일 주소로 남동생이 보낸 거짓 협박 메시지에 대해 죄송하다는 사과문이 발송됐다.

현재 하버드 대학교 1학년에서 재학중인 알렉산더 김(김동광) 학생은 “직접 이메일을 받지 않았지만 SNS나 주변 친구들을 통해 들었다” 며 “이 사건으로 인해 아시아계 학생들이 다분히 언짢아하고 있는 듯 하다” 고 상황을 전했다.

하버드 대학교에선 지난해 12월 한국계 학생이 기말고사를 치르기 싫다는 이유로 캠퍼스 안에 폭발물을 숨겼다는 거짓 이메일을 보내면 서약 7시간 동안 교정 일부가 폐쇄되는 소동이 발생한 바 있다. 작년 4월에는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으로 260여명의 사상자가 난 바 있다.

연이어 발생하는 총기, 폭탄 협박에 지역 주민들은 아직까지 경계감이 큰 상태다.

dyoo9146@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튼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론 펌 Iron Perm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론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 법무부·외교부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정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 을 설정하고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이에 따른 자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은 IMF 구제 금융 시기에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 중지되어 있는 사람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되었다.

기소중지자는 원칙상 본국으로 입국해 조사를 받아야만 해소된다. 하지만 외교부는 기소중지 사건의 존재가 미국의 영주권 취득 등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서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①부정수표 단속법위반, ②근로기준법 위반, ③ 사기·횡령·배임·업무상 횡령 및 배

임(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으로 입건되어 기소 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에 한한다.

자세한 문의나 신청 절차는 총영사관(617-641-2830, 300 Washington St, Newton, MA 02458)을 통해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서강대 가을 동문회 공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서강대 동문회(회장 이수범)가 오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노스보로 소재의 토가스 농장(Tougas Farm)에서 가을 모임을 가진다.

토가스 농장에서 애플픽킹을 즐긴 후에는 뱀부파인 아시안퀴진 앤 스시 바(Bamboo Fine Asian Cuisine and Sushi Bar)에서 점심식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수범 회장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동문 모임"이라며 "새로운 동문들은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서강대 동문회는 보스톤을 중심으로 뉴잉글랜드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이수범 회장(617-833-2694)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 가을풍경 담긴 사진 콘테스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매사추세츠 로컬 신문사 매스라이브(MassLive)와 더리퍼블리칸(The Republican)에서 주최하는 제 8회 가을풍경 사진 콘테스트가 지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열린다.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을 담은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다음 링크(<http://www.masslive.com/mail-forms/fallphotos/>)를 통해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로드 아일랜드와 메인 주에 거주하는 만 18

세 이상의 합법거주자다.

제출한 모든 사진 작품은 매스라이브에 게재되며 우수한 작품은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더리퍼블리칸 1면에 자리하게 된다. 상금은 \$50이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http://www.masslive.com/fall-foliage/#/13>)를 통해 알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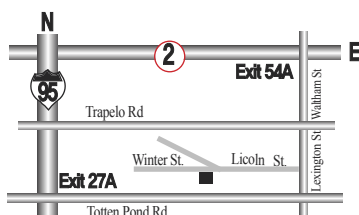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패션무대로 전하는 세 한인들의 암 극복 스토리

## 암 극복 아시아인 여성들의 축제 제 2회 자선패션쇼 열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오는 11일 토요일 오후 7시 아시아 안우먼포헬스(Asian Women for Health)에서 주최하는 제 2회 자선패션쇼 (Celebr Asians: A Benefit Fashion Show)가 서머빌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암을 극복한 아시아 여성들을 격려하며 암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암을 이겨낸 아시아 여성들이 모델로서는 이 패션쇼에는 특별히 한인 여성 3명이 참가한다. 이날 무대에서는 송래 페닝턴(SongRe Pennington)과 이미진, 에이미 바리토 (Aimee Bariteau)는 암을 극복한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한다.

매스제너럴호스피탈(Mass General Hospital)에서 유방암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은 송래 페닝턴은 패션쇼에 앞서 “삶은 선물이다. 연약하기도 한 이 삶을 가장 뜻 깊고 행복하게 보내야 한다” 고 전했다.

이날 패션쇼에서는 필립소여디자이너(Philip Sawyer Design)과 프린티드빌리지(Printed Village)등 여러 동양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소개된다. 이 행사는 보스톤 패션위크 기간과 겹쳐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행사 후에는 각 디자이너의 의상을 주문할 수 있으며 수익금의 15%는 아시아안우먼포헬스에 기부될 예정이다.

리셉션에는 인도 요리와 일본 스시가 제공되며 이 외에도 손 마사지와

헤나 타투,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입장료는 \$80이며 티켓은 다음 링크에서 구매할 수 있다. (<http://www.eventbrite.com/e/2014-celebrasians-benefit-fashion-show-tickets-12592443337?aff=eac2>)

###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7시~10시

장소: 댄스 유니언(Dance Union, 16 Bow Street, Somerville, MA 02143)

dyoo9146@bostonkorea.com

## 보스톤산악회 정기산행 공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에서 오는 18일 토요일 마운트 화이트페이스(Mt. Whiteface, 4,020피트/오름높이 2,850피트)로 정기산행을 간다.

왕복 7.8마일인 이번 산행은 블루베리 레지 트레일(Blueberry Ledge Trail)을 따라 가며, 등산 속도에 따라

A, B, C 세 조로 나뉘어진다. 신청시 원하는 조와 차량여부, 집결지(울스톤 혹은 Exit 2) 등을 알려야 한다.

준비물은 배낭, 방풍의, 우의, 장갑, 모자, 스틱, 식수, 간편 중식 등이며 이번 트레일에는 바위가 많아 미끄럽기 때문에 등산화 착용이 필수다. 회비는 20불이다.

신청 및 기타 문의는 978-569-3256(김상호)로 연락하면 된다.

### 산행공지

일시: 2014년 10월 18일 토요일  
집결지: 울스톤 공영주차장 오전 6시 / Park&Ride, Exit 2 of RT93 오전 6시 45분

bostonkorean@hotmail.com

## 재미과기협 청년과학기술자 리더십 학술대회 참가모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 회장 안국준)이 주최하는 제 11회 “청년과학기술자 리더십 학술대회 (Young Generation Technical and Leadership Conference)”가 내년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다.

대회 참가 희망자는 청년과학기술자 리더십 학술대회 웹사이트 (<http://yg.ksea.org>)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마감은 오는 31일 금요일까지다.

대회 참가 자격은 과학기술의학 분야 종사자 또는 대학,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15세, 2세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현 회원이거나 신규회원에 한한다. 서류심사 후 대회 참가가 허용된 신청자들에게는 3일간의 호텔 숙박비와 소정의 여행경비가 지원된다.

총 200명 이상의 젊은 과학기술계 종사자들과

학생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 내 정계, 산업계, 학계 지도자와 R&D 전문가 등이 초청되어 강연을 한다. 최첨단 기술에 대한 강연과 토론, 성공적인 커리어 개발을 위한 워크샵과 네트워킹 세션, 포스터 발표, 리더십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익나이트(Ygnite) 2015”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미 과학협력센터(KUSCO, 이사장 정민근)가 후원하며 대회장은 허수정 박사(하버드 대학 블랜드 주니어 펠로우)가 맡는다.

대회 참가 및 신청 문의는 [yg@ksea.org](mailto:yg@ksea.org)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1월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제 10회 리더십 학술대회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http://www.yasuboston.com)



##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단체예약  
주문음식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 가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보스톤의 미술관 · 전시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하늘은 높고 맑은 살피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에는 몸도 마음도 살을 찌우는 법이다. 한 권의 독서도 좋지만 미술관이나 전시회를 돌아다니는 것도 좋을 듯하다. 특히 10월은 보스톤의 수많은 전시회가 가을을 맞아 새롭게 단장을 하는 시기므로 문화생활을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 ▶보스톤미술관 가을 오픈 하우스(Museum of Fine Arts, Fall Open House)

오는 13일 월요일에 보스톤미술관의 가을 오픈 하우스가 열린다. 이날은 누구나 무료입장이며 개장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춤 공연, 할로윈 마스크 만들기, 미술관 투어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여러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150여개의 갤러리가 열리며 오는 12일부터는 스페인 거장 고야의 작품들이 '질서와 무질서(Order&Disorder)'라는 테마로 전시된다.

오픈 하우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mfa.org/programs/series/fall-open-house>)를 참조하면 된다. 평소 미술관 입장료는 성인 \$25, 18세 이상 학생 \$23, 17세 미만 학생들은 \$10(평일 3시 이후와 주말은 무료 입장)이다. 7세 미만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http://www.mfa.org>  
465 Huntington Ave, Boston, MA 02115  
617-267-9300

##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의 가을 정원(Isabella Stewart Gardner Museum, Courtyard)

예술을 사랑한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가 남긴 이 미술관은 건물 자체부터 여기저기 배치되어있는 명화, 엔틱 가구 등 볼거리가 쏠쏠하다. 많은 관광객들이 입이 떡 벌어지게 감탄하는 코트야드(Courtyard) 정원은 박물관 최고의 자랑으로 세계절마다 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10월과 11월동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이 정원은 다양한 종류와 색의 일본 국화로 장식된다.

입장료는 성인 \$15, 학생증의 소지한 학생 \$5이며 18세 미만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개장시

간은 요일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http://www.gardnermuseum.org>  
25 Evans Way, Boston, MA 02115  
617-566-1401

## ▶보스톤 어린이 박물관 가을 축제 (Boston Children's Museum, Fall Festival)

오는 19일 일요일 보스톤 어린이 박물관에서 가을 축제를 연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이 행사는 박물관 전반에 걸쳐 준비된 각종 미술 놀이와 게임,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특별히 10월은 몬스터 먼스(Monster Month)로 할로윈에 걸맞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입장료는 어른 \$14이며 15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http://www.bostonchildrensmuseum.org>  
308 Congress Street, Boston, MA 02210  
617-426-6500

## ▶더아트 오브 더브릭스, 대형 레고 전시회 (The Arts of the Bricks)

CNN.com이 "꼭 봐야 할 세계적인 전시회 TOP10"으로 언급하는 최고의 찬사를 받은 이 전시회는 퀴시마켓 이층에 자리잡은 대형 레고 전시회다. 더아트 오브 더브릭스는 지난 9일부터 1월 11일까지 총 13주 동안 보스톤을 방문한다. 레고 조각으로 명화를 재창조한 작품부터 거대한 사이즈의 공룡까지 전시되어 있어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즐겁게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입장료는 성인 \$23.50,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 \$19.50, 12세 미만 어린이 \$15.50이다. 2세 미만은 무료 입장이다. 티켓은 당일 장소에서 구매가능하며 온라인

(<http://bostonbricks.ticketmob.com>)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http://www.bostonbricks.com>  
200 Faneuil Hall Marketplace, Boston, MA 02109  
978-666-0298  
dyoo9146@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http://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 한미예술협회 제2회 협회전 초대작가 피터 하인즈

“동양의 단순하고도 깔끔한 미(美)에서 영감을 많이 얻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의 조각가 피터 하인즈가 지난 5일까지 렉싱턴에서 열린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제2회 협회전 초대작가 피터 하인즈

한미예술협회 제2회 협회전의 초대작가로 선정되어 11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하인즈 작가는 브론즈를 사용해 단순하고 추상적인 형태의 조형물을 만들며 유명한 작품으로는 테디베어 시리즈가 있다. 2미터 높이의 거대한 테디베어가 2008년 일산에서 열린 고양 조각가협회전에서 전시된 바 있다.

보스톤코리아는 지난 6일 월요일 하인즈 작가의 스튜디오를 방문해 그의 예술관과 협회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브리지에 위치한 그의 스튜디오는 가정집과 작업실을 합쳐놓은 아늑하고 세련된 공간이었다.

집안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 하인즈

작가의 작품들은 마이크로크리스탈 왁스(Microcrystal wax)로 형태를 조각한다. 형태가 잡힌 조각을 몰드(거푸집)에 넣고 주조과정을 거친다. 브론즈를 사용함으로 특유의 부식된 표면을 잘 나타내어 부드럽고 깨끗한 완성품이 탄생한다.

하인즈 작가는 처음 왁스를 손에 쥘 때 무엇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없이 시작한다고 한다. “꽃볼 경기를 보면서, 때로는 고양이와 놀면서 왁스 조각을 이리저리 만지다 보면 어느 샌가 형상이 잡혀있다” 며 “아무 형태도 지니지 않은 왁스 덩어리에서 형상을 찾고 구상해 나가는 과정을 좋아한다” 고 전했다.

하인즈 작가는 “많은 예술가들이 ‘진실’ 과 ‘아름다움’ 이라는 용어를 꺼리지만 나는 작품의 ‘진실성’ 을 추구한다. 진실성을 지닌 작품은 어느 방향에서 봐도 완벽한 형태를 갖춘다” 며 둥그스름한 주사위 모양의 작품을 꺼내 설명했다. 무엇보다 추상적이고 단순한 모형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무의식의 고고학(Archeology of subconscious)’ 을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조금 어려운 설명이었다” 며 웃었다.

한국인인 아내의 소개로 협회전에 참가한 하인즈 작가는 동양의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미(美)를 좋아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회전에도 한국적인 요소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 선비의 갓이 떠오르는 ‘스칼라(Scholar)’ 와 한국에서 봤다는 돌탑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경치가 보이는 방들(Rooms with a View)’ 등이 있다.

그는 예술에 관심 있는 지역 한인들에게 “스튜디오에 언제든지 놀러와도 좋다.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둘러보면 좋을 것 같다” 며 기쁘게 스튜디오를 오픈했다.

보스톤박물관 부속대학과 하버드대와 스쿨 오브 뮤지엄 오브 파인아트(School of the Museum of the Fine Arts)를 졸업한 하인즈 작가는 보스톤 로컬 작가로서 현재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협회전에 전시된 하인즈 작가의 작품

## 김동원, 나유선 가을 음악회 성황

사랑의 테마로 전한 감동의 무대에 150여명 모여 큰 호응 보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5일 일요일 한미예술협회에서 주최한 김동원, 나유선의 가을음악회가 150여명의 청중을 이끌며 성황을 이뤘다.

브루클라인 소재의 세인트폴 교회에서 열린 이 음악회는 바리톤의 김동원과 소프라노의 나유선, 피아니스트 김초아가 무대를 장식했다. 이번 음악회에서 성악가 김동원과 나유선은 독일, 이탈리아, 한국 등의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로 구성된 다양한 장르의 11곡을 선보였다.

이날 음악회는 사랑이라는 테마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성악가 나유선이 브람스의 가곡 3곡과 한국 가곡 ‘그대 있음에’, ‘그리운 금강산’ 을 불렀고, 이어 무대에 선 성악가 김동원은 토스티 작곡의 이탈리아 가곡과 성가곡 ‘여호와 나의 목자’ 와 ‘주기도문’ 을 불러 관객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2부에서는 두 사람의 합동 무대가 펼쳐졌다. 성악가 김동원과 나유선은 풍부한 감정 연기와 함께 베르디의 오페라 ‘가면무도회’ 와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에 나오는 곡 등을 불러 관객들의 귀와 눈을 사로잡았다.

이날 참석한 약 150여명의 청중들은 2시간 동안 진행된 무대에 뜨거운 환호와 기립 박수로 응답했다. 한 관객은 “두 성악가의 시원한 목소리와 풍부한 감성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고 전했다.

한미예술협회의 다음 기획은 내년 5월로 예정된 소프라노 성악가 홍혜경의 리사이틀이다. 자세한 정보는 [www.kcsboston.org](http://www.kcsboston.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5일 열린 김동원, 나유선 음악회에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만립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http://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치대 준비생들을 위한 프리덴탈 워크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비영리단체 덴티스트포휴머니티(Dentists for Humanity)가 오는 25일 우번 소재 웨스트 커밍스 파크에서 치대 준비생을 위한 프리덴탈(Pre-Dental) 워크샵을 개최한다.

보스톤대학(BU), 터프츠대학(Tufts Univ.), 하버드대학(Harvard Univ.)의 치대생들과 보스톤 지역의 치과 전문의들이 멘토링을 제공하는 이 워크샵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하지만 치대에 관심 있는 치대 준비생이나 포스트백(post-baccalaureate) 과정 중인 사람에게 특히 유용한 워크샵이 될 것이다.

하버드 치대 권수연 학생은 “치대 원서 준비, 입학 시험(DAT), 인터뷰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고 현지 치과 전문의들의 오피스를 방문할 기회가 준비되어 있다”며 “치대에 관심 있는 보스톤 인근 한인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듯하다”고 전했다.

워크샵 참가 신청은 다음 링크(www.dentistsforhumanity.org/pre-dental.html)를 통해 할 수 있다. 참가비는 \$100이며 11일 토요일까지 등록

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번 행사의 모든 수익금은 덴티스트포휴머니티가 참여하는 아이티 클리닉 후원 등 다양한 국내외 봉사 활동에 쓰여질 예정이다.

덴티스트포휴머니티는 칠드런스 호스피탈(Children's Hospital) 소속 김수우 교수(하버드 치대)가 지난해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보스톤 지역 치과 전문의들로 구성되어 있다.

워크샵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덴티스트포휴머니티 홈페이지(www.dentistsforhumanity.org)를 통해 알 수 있다.

###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 Pre-Dental Work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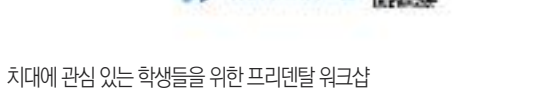


## Interested in Dental School?

- Want to learn more about dentistry as a career?
- Want to develop manual dexterity through hands-on dental experience?
- Want to become a more competent applicant?
- Want a mentor to guide you through application process?
- Want to be more involved?

**We Can Help!**  
Date & Time: Oct. 25, 2014 Sat - 5pm  
Location: 800 West Cummings Park, Woburn, MA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dentistsforhumanity.org/pre-dental.html



치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리덴탈 워크샵  
8시~오후 5시  
장소: 800 West Cummings Park, Woburn, MA 01801  
dyoo9146@bostonkorea.com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정기총회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4일 토요일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회장 이경해, 이사장 김성군)가 제2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뉴턴 시 소재 성 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이경해 회장과 김성군 이사장을 비롯한 18명의 이사들과 협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박영찬 이사가 수석부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새로 영입된 크리스틴 김(재무담당)을 포함한 새로운 이사들의 소개가 있었다. 이후에는 협회의 각종 활동 보고와 사업계획 및 차세대 심포지움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여류 동안 르랜드 청(Leland Cheung) 부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수료한 시민협회의 정치인턴 마이클 영(Michael Yeung)이 참석해 인터넷 후기를 전했다. 이어진 김성혁 이사와 리디아 신 이사의 프레젠테이션은 시민협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추후 활동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마지막으로 임균택 사무차장이

제 2회 차세대 심포지움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 연사(제임스 민, 도이치 포스트 DHL 국제 무역법 담당 부 회장, 윤경, KACF 사무총장, 그레이스 한울프, 버지니아주 헌든 구 의원, 라이언 승주 리, 뉴욕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데이비드 림, 필라델피아 차관보 지방검사, 셴 킴, McGuireWoods LLP 변호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는 오는 11월 1일 차세대 심포지움(Young Leaders Symposium)을 하버드 로스쿨에서 개최한다. 참가 희망자는 시민협회 웹사이트(www.kacl-ne.org) 혹은 임균택 사무차장(kyuntaek001@gmail.com), 이벤트 브라이트(http://www.eventbrite.com/e/2014-korean-american-citizens-league-young-leaders-symposium-tickets-13563210929#)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4일 뉴턴에서 열린 제 24회 시민협회 정기총회

# 코리아스터디 무료 워크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코리아스터디(Korean Studies) 무료 워크샵이 10일부터 12일까지 월덤 소재의 월덤 우즈 컨퍼런스 센터(The Conference Center at Waltham Woods)에서 열린다.

훌륭한 강사들의 한국의 근현대사부터 한국어,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가 이루어진다. 교재가 무료로 지급되며 아침과 점심도 제공된다. 매일 다

른 스케줄로 진행되며 매일 약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신청은 다음 이메일(Shanna\_Thompson@uml.edu)로 보내면 된다. 신청 시 이름과 학교, 과목, 학년,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기타 문의는 agnesahn@massmed.org로 하면

된다.

###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0월 10일~12일 오전 8시 30분~3시

장소: 월덤 우즈 컨퍼런스 센터(The Conference Center at Waltham Woods, Beacon Hill Room)  
860 Winter Street, Waltham, MA 02451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 업무분야

-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 한미선

###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http://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위안부 구술집 '들리나요' 영문판 북미주 배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위안부 구술집인 '들리나요'가 내년 2월 보스톤을 포함한 북미주 주요도시에서의 순회 배포를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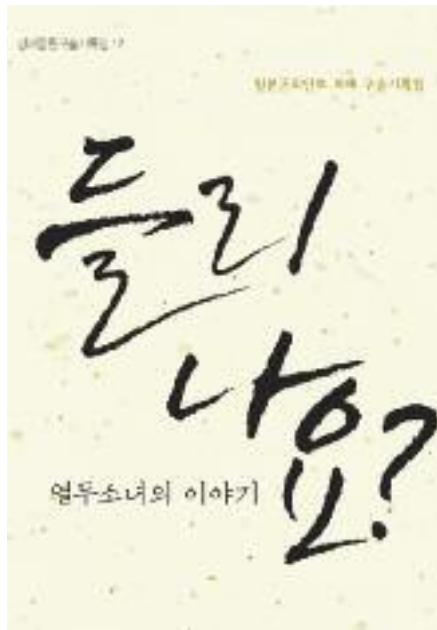
지난 9월 15일 영문 번역을 마친 '들리나요 영문판'은 올해 12월 출판된다. 내년 2월경 보스톤, 뉴욕, 로스앤젤레스, 토론토, 밴쿠버 등 북미주 주요 도시에서 도서관, 학교 등 교육단체와 정부기관에 기증될 예정이다. 현재 이 번역본은 한국의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게 보내져 출판을 기다리고 있다.

미디어 조아(대표 한지수)는 12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담긴 구술집 '들리나요'가 "왜곡되고 감추어진 역사적 사실을 전세계적으로 알리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들리나요'의 더욱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다양한 행사가 동시 기획 중에 있다. 한지수 대표는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싶은 것'의 순회상영과 위안부 사진전 개최, 국제 위안부 심포지엄을 함께 진행하여 언론에 대대적으로 소개하는 대규모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자책으로 출판, 배포 후 코멘트를 다는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도 배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 미국 인권 단체와 위안부 관련 활동 중인 여러 한인단체 등 뜻을 같이 하는 다양한 공동체와 함께 협력한다.

'들리나요 영문판'의 번역 작업은 위안부 소재 화가 스티브 카발로(Steve Cavallo)와 영문학을 전공한 재미한국인 두 명이 주축이 되어 6개월



일본 위안부 피해 구술 기록집 '들리나요'

간 진행되었다. 감수는 뉴저지 체리힐 소재 거룩한 성 교회 이성현 목사가 맡았다.

dyoo9146@bostonkorea.com



고참(X) -> 선임(자) (O), 선참(자) (O)  
신참(X) -> 새내기 (O)

'고참(古參)'은 일본식 표현입니다. 우리식 표현에서는 '선임(先任)'이라고 합니다.

선임, 선임자, 선참, 선참자 (< ->를 빼고) 이런 잘못된 언어습관의 사회 국립국어원에서도 이미 이 말들을 쓰도록 다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참'도 일본식 표현에서 온 말이라 '새내기'로 다듬었구요.

이런 잘못된 언어습관의 사회적 시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기사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 bostonkorean@hotmail.com, 617-254-4654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가을산행 및 태극기 게양식 기념 음악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회장 이동문)에서는 오는 13일 가을산행과 26일 일요일 태극기 게양식 기념 음악회를 가진다.

### 가을산행

클럽버스 데이를 맞아 떠나는 가을산행은 13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와윅 몰(Warwick Mall) 주차장

앞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산행지는 워터틱 산(Mount Watatic)과 캐시더럴 오브더 파인스(Cathedral of the Pines)이며 준비물은 산행에 알맞은 복장 및 신발이다. 산행회비는 \$20이다.

자리배정을 위해 401-451-8518 혹은 info@rikorean.org로 사전에 참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 태극기 게양식 기념 음악회

26일 일요일 오후 5시에는 전날 열리는 주정부 청사의 태극기 게양식을 축하하기 위해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에서는 국악과 재즈의 합동 공연을 기획 중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는 '아우름(AUREUM)'과 버클리 대학의 재즈 음악가들의 합동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은 브라운 대학교 살로몬 센터(Salomon Center De Cicccio Family Auditorium)에서 열리며 주소는 79 Waterman St, Providence RI 02912이다. 공연 티켓은 어른 \$30, 학생 \$15이다. 모든 수익금은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의 문화 발전기금으로 쓰여진다.

이 행사는 보스톤 총영사관, 재외동포 재단, 민주평통 보스톤 협의회,

브라운 대학교, 브라운 한인학생회(KISA/KASA), 브라운 대학교 대학원 학생회(KGSA/RISD KGSA)가 후원한 바 있다.

티켓 문의는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웹사이트(www.rikorean.org)를 통해 할 수 있다(전화 401-451-8518, 이메일 info@rikorean.org).

bostonkorean@hotmail.com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Birchtree Properties, R.E.

**이정선 부동산**

\*부동산 비즈니스 세일

Cell 781.883.5984  
Fax 781.874.9587  
Work 781.874.2087  
Email Chunglee7@gmail.com

33 third street medford, Ma 02155  
www.btpusa.net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 2014 주민투표 유류세 및 카지노에 찬반 투표 가능

올해 11월 선거에서 4가지 현안 문제 투표 YES가 기존 법안에 반대, NO가 찬성 의미 병가에 주민들 찬성표 높고 카지노는 접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4가지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주민투표로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복잡한 영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뜻과는 반대로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

주민투표 선거에서 'yes' 로 답을 하는 경우는 현재 있는 법안을 바꾸거나 기존의 법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no' 라고 답을 하는 것은 기존의 법안을 바꾸지 않고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투표 질문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투표장에서 바로 질문을 읽고 답하려면 헛갈릴 수 있다. 올해 주민투표에 나올 4가지 질문에 대해 살펴보자.

**질문 1: 유류세(THE GAS TAX)**

2013년에 매사추세츠 의회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부과되는 유류세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유류세는 물가가 올라가면 의회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인상된다.

YES: YES라고 답을 하면 2013년

에 통과된 법안에 반대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는 법안은 폐기되고, 의회가 차후에 유류세 인상 법안을 통과 시킬 때까지 현행 유류세인 갤런당 24센트가 유지된다.

NO: NO라고 답하면 변화 없이 현행 법안이 유지된다. 따라서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유류세가 인상된다.

**질문 2: 생수병 (THE WATER BOTTLES)**

1983년 이전에 사람들은 맥주나 탄산음료를 마신 뒤에 음료가 담겨 있던 병이나 캔을 전혀 재활용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병이나 캔을 재활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1983년에 법안이 제정되어 맥주나 탄산음료가 들어 있는 병과 캔에 5센트의 디포지트(deposit)이 추가되었다. 맥주나 탄산음료의 구입 가격에 5센트가 디포지트로 추가되는 대신, 음료를 마신 후에 병이나 캔을 재활용 센터에 가져오면 5센트를 돌려주는 것이다.

30여 년이 흐른 뒤, 사람들은 맥주와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스포츠 음료와 생수도 많이 사서 마신다. 1983년에 만들어진 법안을 수정하여 스포츠

음료나 생수, 주스 등에도 디포지트를 부과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YES: YES라고 답을 하면 1983년 제정된 법안이 수정되어 맥주와 탄산음료에만 적용되던 디포지트가 다른 음료에도 적용된다. 생수, 주스, 스포츠 음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음료수 용기에 디포지트가 추가된다. 따라서 음료수를 구매할 때 5센트를 추가로 내야 하고, 다 마신 음료수의 용기를 재활용하면 5센트를 돌려 받는다.

NO: NO라고 답을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생수병을 비롯한 음료수 가격이 오르지 않고, 음료수를 마신 뒤에 병을 재활용해도 5센트를 받을 수 없다.

**질문 3: 카지노(THE CASINOS)**

2011년에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어 매사추세츠 주에 3개의 카지노와 1개의 슬롯 머신 게임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카지노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아 법제화 되었으며, 현재 여러 카지노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민들 스스로 카지노 법안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YES: YES라고 답하면 2011년에 만들어진 카지노 법안이 무효가 되고 매사추세츠 주에는 카지노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이미 허가가 난 에버릿과 스프링필드의 카지노 건설 계획도 전면 백지화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슬롯 머신 게임장 공사도 전면 중단된다.

NO: NO라고 답을 하면 기존의 법



올해 주민투표에서는 카지노부터 생수병에 관한 법안까지 다양한 문제가 다뤄진다

안을 지지하여 카지노 법안이 유지된다. 에버릿과 스프링필드에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 리조트 건설이 진행되어 빠르면 2017년에 매사추세츠 최초의 카지노가 문을 연다.

**질문 4: 병가(THE SICK DAYS)**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대부분 직원들이 몸이 안 좋을 때 쉴 수 있도록 병가를 내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병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법안이 없지만, 일한 시간에 따라 병가를 주는 법안이 추

진 중이다.

YES: YES라고 답을 하면 병가를 의무적으로 주는 법안 제정에 찬성을 하게 된다.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돌봐야 할 때 병가를 낼 수 있다. 제안된 법안은 30시간마다 1시간의 병가를 쓸 수 있고, 연간 최대 40시간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종업원이 11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NO: NO라고 답을 하면 병가를 주도록 하는 법안은 제정되지 않는다. 회사의 재량에 맡기게 된다.

jsi@bostonkorea.com



이번 주민 투표안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유급 병가. 11인 이상 사업장에선 의무다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http://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http://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보스톤 시의회, 연봉 2만불 인상 셀프 승인

9대 4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 미셸 우는 독립적인 인상 위원회 설립 주장하며 반대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시의회는 8일 1시간의 토론 끝에 오는 2016년 다음 회기 시의원들부터 연봉을 연 2만불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보스톤 시장 마틴 월시의 서명을 받는 경우 오는 2016년 보스톤 시의원의 연봉은 107,500이 된다. 마틴 월시 시장은 향후 15일간 서명사를 밝힐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시의회는 3분의 2이상의 표결로 이를 재승인할 수 있다. 시의회는 9-4로 표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월시 시장의 거부권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시의회는 월시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자 시의회 의장 라인헨의 최초 제안했던 \$112,500의 연봉에서 \$5,000 삭감한 금액으로 통과시켰다. 인상된 금액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의회가 자신들의 월급을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이 윤리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다음 회기 시의원들부터 월급을 적용했다.

시의원 대다수는 지난 2006년 이래 동결된 연봉의 인상에 찬성했으며 4명의 시의원은 인상폭이 크다는 이유와 자신들의 연봉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스티븐 머피 시의원이 셀프 연봉 인상을 비난하는 언론들을 강력하게 성토했고 있다

던졌다.

월시는 시의원들의 연봉이 올라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과도하게 올리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번 승인안에 대해 좀더 숙고해보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보스톤 시의회는 매 2년마다 선거로 재선출 된다. 시의원들은 겸직을 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시의회일만 해야 한다. 시의원들 모두는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시의원 마이클 플래허티의 경우 로펌 주식을 소유해 자본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일부 시의원은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맷 오말리와 어야나 프레슬리 시의

원은 보스톤시 평균임금 인상율에 시의원 연봉 인상율을 연계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11-2로 부결됐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 두 의원은 반대했으며 미셸 우 시의원과 자시 제이킴 시의원은 셀프인상을 반대하고 독립된 인상위원회의 조직을 건의하며 반대했다.

그러나 나머지 시의원들은 연봉인상을 강력하게 밀어 부쳤다. 특히 스티븐 머피 의원은 “언론사 칼럼니스트들이 시의원들의 연봉인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으며 2006년 이래 연봉인상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교외에 사는 칼럼니스트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여전히 동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hsb@bostonkorea.com



## 운전 중 문자 메시지 단속 강화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불법이다.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주부터 매사추세츠 주 경찰은 도로에서 단속하는 경찰관의 수를 늘리기로 했다. 경찰차에 타고 있는 경찰뿐만 아니라 사복 경찰들도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운전자를 찾아 나선다.

매사추세츠 주의 안전 운전 법에 따르면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작성하거나, 읽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어 있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와 관련하여 경찰에 적발되면 처음에는 100달러가 벌금으로 부과되고, 재범의 경우에는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된다.

매사추세츠 주 경찰은 단속 경찰관의 수를 늘려서라도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근절 시킬 계획이다. 또한 매사추세츠 정부는 연방 교통부로부터 27만 5천 달러를 지원 받아 “한 손으로 문자를 보내면, 다른 손에는 티켓이”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2년 동안 시행할 예정이다. 문자 메시지 단속 경찰을 늘린 것도 이 캠페인의 일환이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금지시키는 것과 같이 운전 방해가 되는 행위를 막는 법은 미국 내 44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런 법이 보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방 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에 문자 메시지 같은 운전 방해가 되는 행위 때문에 발생한 차 사고로 3천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운전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정관장

미주 한인회 힘 대한민국 뿌리에 있습니다

# 요즘 같은 때 일수록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건강이 걱정되는 요즘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면역력입니다

**정관장 홍삼이면 믿을 수 있습니다.**

115년 정관장의 원칙은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국내산 6년근 고려인삼만을 100%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로 사용하며 최고의 설비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받고 만들어집니다. 태생부터 다른 정관장 홍삼은 타 홍삼제품이 모방하지 못하는 품질이 있습니다.

**그 어떤 건강식품 보다 안전합니다.**

과대광고 제품과 다양한 속설에 주의하세요. 홍삼은 장기섭취가 가능하고 무독한 상약으로 분류되어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관장 홍삼은 인삼을 증삼하여 부작용을 줄였으며 체질에 관계없이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1일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면 그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매사추세츠 미국내 최초 의료시술가격 공시

일반 의료보험사마다 가격 천차만별, 디덕터블이 높은 경우 미리 의료시술 가격 파악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일반 보험에 가입한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보험회사 웹사이트에서 의사방문, 제왕절개, MRI 등의 가격을 사상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가격을 표시토록 한 것은 미국내 최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해당 의료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었다. 매사추세츠 주는 2년 전 이처럼 병원과 의료보험회사들이 감추려 했던 정보를 공개토록 법제화했으며 지난 10월 1일부터 매사추세츠 주는 보험회사가 실제 의료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첫번째 주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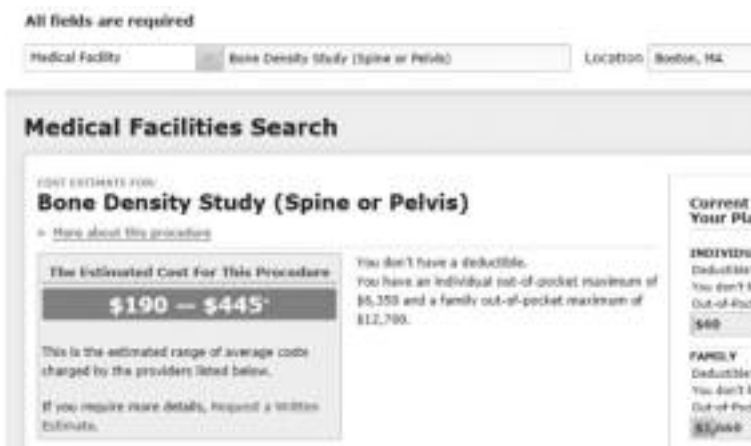
매사추세츠 소비자 및 사업규제 부의 바버라 앤소니 차관은 “아주 대단한 일이다. 의료서비스 가격이 투명화되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1.) 의료서비스 가격은 표준화되지 않았다. 보험회사마다 다르다. 골밀도 검사나 건강검진, 건강검진 플랜의 경우 \$16로 가장 낮았고 하버드 필그림 헬스케어의 경우 \$87이었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보험사마다 병원과의 협상가격이 다르고 부대 서비스를 포함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2.) 표시된 가격은 부대 서비스 가격을 모두 포함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각 보험사들은 가격을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미세 글씨를 잘 읽어야 한다.

3.) 가격은 수시로 변동된다. 한 시점에 블루크로스의 골밀도 검사 가격은 \$120이었던 5일 후에는 \$190로 올라갔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10월 1일부터 의료시술 가격 공개를 의무화했다

4.) 검사나 의료 시술에 대한 표준 가격이 없다.

5.) 정보의 질은 아직 미약하다. 어느 곳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 증거는 없다. 대부분의 것은 소비자들의 만족도 점수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관계자는 현재 이 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들은 마침내 병원에서 검사나 시술 가격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일부 의사나 병원은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비싸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큰 변화” 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자신들이 가장 비싼 시술 가격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격이 공개되면 가격경쟁을 시작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공개된 자기공명영상(MRI)가격은 \$614에서 \$1800로 다양하며 소비자들은 이 가격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가장 높은 가격은 보스톤 칠드런스 호스피탈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뉴잉글랜드 맵티스트 호스피탈이었다. 소비자들은 일단 이 두 병원의 MRI의 질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약 15%의 일반 보험은 높은 디덕터블플랜을 가지고 있어서 환자들은 의사 방문이나 각종 테스트 가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차이를 아는 것은 커다란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루크로스의 경우 “Find a Doctor” 에서 가격을 알아볼 수 있으며 텡스 헬스플랜은 “Empower Me”, 하버드 필그림은 “Now iKnow” 에서 가격을 찾아 볼 수 있다.

에트나(Aetna)보험은 가격과 서비스의 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시한 첫번째 보험회사다. Member Payment Estimator를 통해서 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 보스톤 경찰, 길거리 검문 63%가 흑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경찰은 인종차별적 단속을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로 심각한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고 미시민자유연맹은 밝혔다.

새로 발표된 한 분석에 따르면 보스톤의 흑인 인구는 24%에 불과하지만 경찰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행인들을 단속한 63%가 흑인이었다.

자메이카 플레인에 거주하는 이반 리치에즈(22)는 이 같은 보고서가 결코 놀랄만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락스베리에 거주하는 알렉스 폰테캐플랜은 “내가 거리에 있을 경우 언제나 경찰의 타겟이 되는 것을 느꼈다(중략) 한 때는 일주일에 세번이나 경찰이 불러세웠다” 고 밝혔다.

8일 발표된 분석은 미시민자유연맹(ACLU)와 두명의 독립된 연구가에 의해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이 거리에서 검문한 후 작성해 보고하는 경찰 보고 즉 FIO(현장검문및감찰; field interrogation and observation)로 알려진 20만 사례를 연구 분석했다.

미 시민자유연맹의 맷 시컬 법륜디렉터는 “이번 보고서는 이것이 인종적(불공평성)차이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인종적 편견을 드러냈다” 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 거리검문후 보고(FIO)가 뉴욕과 같은 도시의 악명높은 길거리검문 및 몸수색이 아니라 경찰이 다양한 거리 검문을 문서화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

혔다. 또한 이 분석은 경찰이 범죄율이 높은 곳에서 갱 조직원들을 타겟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컬 디렉터는 심지어 경찰이 높은 범죄율의 지역에서 행인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이 같은 수치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러거스 대학의 범죄학자이며 하버드대학 펠로우로서 이번 연구의 공동저자인 앤소니 브러가 박사는 이 같은 ALCU의 분석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거리에서 검문하는 가장 많은 근거는 범죄여부, 범죄조직 관련 여부, 범죄발생 등이다.

브러가 박사는 이 같은 요인을 고려했을 때 흑인은 경찰의 검문을 여러 번 당할 확률이 백인에 비해 8% 높았고, 검문과 몸수색까지 당할 확률은 8%나 높았다. 브러가 박사는 “왜 인종적인 패턴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적인 패턴이긴 하다” 고 인종적 차이가 있음을 시인했다.

경찰도 이 같은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임명된 윌리엄 에반스 보스톤 경찰 서장은 “완벽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위험한 지역, 범죄조직과 폭력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우리는 아무런 이유없이 흑인들을 검문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mailto: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4989

**EXCLUSIVE**








**BEDFORD 지역 단독주택**

(3 CEDAR LANE, BEDFORD, MA 01730)

For sale: \$ 599,000, For rent: \$ 2,350

3+ Beds, 2 Bath, 2238 sf (Lot size: 1.3 acre)  
 학군 좋은 Bedford지역 Single House, CUL-DU-SAC,  
 Private한 곳에 위치, 넓은 정원

# 에볼라 확산 공포 뉴욕 등 5개 공항서 검역 강화

##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어 입국 승객 대상 체온 검사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내 첫 에볼라 사망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 및 캐나다가 서아프리카 에볼라 창궐국가에서 입국한 승객을 대상으로 공항 검역을 강화한다고 AFP통신이 8일 보도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오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입국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에 감염돼 미국으로 온 환자가 미국에서 사망한 후 나온 조치다.

이에 따라 미국 당국은 뉴욕 JFK 공항, 워싱턴 CD 델라스 공항, 시카고 오헤어 공항, 애틀랜타 허츠필드 잭슨 공항, 뉴어크 리버티 공항 등 5개 공항에서 입국자 대상 체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서아프리카 3개국 승객 94%는 이들 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모든 해외 입국 승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보건당국은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면 설문지를 통해 에볼라 감염 여부를 물은 후 체온을 측정할 예정이다.

CDC 직원들은 해당 5개 공항으로 파견돼 입국 심사, 설문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CDC 관계자는 "훈련받은 의료진이 신체간 직접 접촉이 없는 방식으로 체온 검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에볼라 감염 의심 징후가 나타나면 격리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톰 프리드 CDC 소장은 전날 "지난 두 달간 서아프리카 3개국을 떠난 사람은 약 3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77명이 고열 증상을 보였으나 말라리아 보균자일 뿐 에볼라 감염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캐나다 역시 에볼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공항 검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로나 암브로스 캐나다 보건장관은 "캐나다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체온 검사를 실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국가 및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미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니,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등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는 8033명이며 이 가운데 3865명이 사망했다.

ejjung@news1.kr

# 첫 에볼라 사망자와 '간접접촉' 남성, 감염 의심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미국 내 에볼라 바이러스 첫 감염 환자가 숨진 데 이어 텍사스주 델러스에서 두 번째 의심환자가 나타났다고 CBS 등 미국 언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델러스는 미국 내 첫 에볼라 감염 환자인 에릭 덩컨이 숨진 곳이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날 오후 델러스 북쪽 외곽 도시인 프리스코시의 병원 '케어 나우'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증세를 보인 환자를 텍사스 건강장로병원으로 이송했다.

소식통은 에볼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델러스 카운티 경찰국 소속 부보안관인 마이클 모니그로 위장 문제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마크 필러드 프리스코시 소방서장은 "모니그는 덩컨의 아파트에 들어갔고 덩컨의 지인들과 접촉했다"고 발표했다. 덩컨과 간접적으로 접촉한 셈이다.

그는 모니그가 덩컨과 접촉해 관

계 당국이 추적 검사중인 감염 우려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모니그의 아들인 로건은 CBS에 "이 날 아침 모니그가 기상한 후 통증을 느끼고 구토를 했다"고 전했다.

로건은 "연방정부 관계자와 시 관계자에게 모니그가 덩컨과 직접적인 체액 접촉이 없었다고 말했다"며 "가족들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버지가 에볼라 양성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덩컨이 머물던 아파트에 약 30분간 머물렀다고 들었으나 바이러스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니그가 찾았던 케어 나우 병원은 에볼라 의심 환자가 발생하자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한편 즉시 병원을 폐쇄하고 안에 있던 다른 환자 14명을 다른 방으로 옮겼다.

lchung@news1.kr



에볼라 미 첫 사망자 발생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일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각 주 및 지역 정부를 대상으로 미정부의 에볼라 예방책을 논의하는 통화를 하고 있다. 에볼라 창궐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한 라이베리아 출신으로 미국내에서 최초로 에볼라 확진 판명을 받았던 토마스 에릭 덩컨이 이날 텍사스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교통사고  
직장상해  
닥터노트  
학생보험

## 물리치료 재활치료 전문병원을 찾으십니까?

현. 닥터스 통증 병원 대표 원장  
뉴욕 닥터스 통증 클리닉 대표 원장  
노스이스턴 대학교 물리치료학 박사  
에모리얼 병원 재활의학과 수석비서  
위싱턴 디씨 통증병원 원장  
대구대학교 외과 교수  
신원대학교 외과 교수  
영동대학교 교수 | 희곡장  
한양대학병원 재활의학과

617.731.1001  
GOODPT.COM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DOCTOR PHYSICAL THERAPY  
닥터스통증병원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u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핫스톤  
속 눈썹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617-970-6038 , 617-558-8870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 성기주 법 칼럼

## 인종차별?

며칠 전 제 의뢰인의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보스턴 이민국에 갔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인터뷰는 참석자들이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고 참석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시작합니다. 언제나와 같이 저는 제 운전면허증과 변호사 자격증을 심사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아주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인여성인 이 심사관은 운전면허증의 제 사진이 저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당해보는 상황이라 많이 황당했습니다. '내가 내가 아니다? 피라도 뽑아줘야 하나?' 영주권 인터뷰 때문에 가뜰이나 긴장하고 계신 제 의뢰인도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이 황당함에 약 1분의 침묵이 이 사무실에 흐르고 있을 때 이 심사관이 다시 말을 합니다. '흠... 비슷한 것도 같네...'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지? 새로운 종류의 인종차별인가? 내가 이상한 서류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면허증을 제시했는데 내 사진이 내가 아니라고?'

의뢰인의 케이스에 지장이 있을까 봐 화도 못내고 꺾꺾 참고 인터뷰에 임했고 다행히 인터뷰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찻찻한 기분은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직원들과 동료들에게 제 면허증을 보여주고 진짜 저와 다른지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가끔은 다 똑같이 보일 때가 있으니 그런 것일지 모르겠다 싶어서요. 하지만 모두들 그렇게 까지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화를 내더군요.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분명 부당한 일임에는 틀림 없는데 다시 찾아가서 항의를 해볼까 아님 그럴 수도 있다고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지 말이지요.

'십여 년 전 학교다닐 때만해도 한국인이라고 무시도 많이 당했는데 아마 이런 일이 그때 일어났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당장 찾아가서 진상을 부렸겠지? 무시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반문해 봅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한국의 지위가 옛날 한국의 지위가 아닌 것에 우리가 놀라고 있지 않나! 실제로, 우리 직원들은 컴퓨터나 핸드폰이 고장나면 저한테 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컴퓨터나 이런 쪽에 젼병인데도 말이죠. 오히려 이런거 잘 모른다고 하면 화내고 갑니다. 시간 없으면 없다고 하라고, 어떻게 한국사람이 그런 것을 모르냐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 정도로 발끈하고 진상을 떠는 것은 우리 격에 떨어져.' 하지만 여전히 아무 것도 안하기엔 이 찻찻함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렸습니다. 보스턴 이민국의 제일 높으신 분께 정중히

건의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보스턴 이민국 국장님,  
저는 보스턴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성기주라고 합니다.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인이고요. 얼마 전 제 의뢰인의 영주권 인터뷰가 보스턴 이민국에 잡혔습니다. 저와 제 의뢰인은 이 인터뷰에 참석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변호사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유감스럽게도 이 인터뷰를 담당 하였던 심사관께서는 제 신분을 확인하시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셨습니다. 백인여성인 이 심사관은 제가 보여드린 제 Massachusetts 운전면허증의 제 사진과 제 실제 얼굴이 동일인인지 확인하는데 꽤 어려움을 가지셨습니다.

이에 제안 드립니다. 격무에 시달리시는 이민국 심사관님들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동양인 변호사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면허증 외에 별도로 DNA 증명 등 확실한 신분확인 증명서의 종류는 정해주시고 사전에 통보해 주셔서 저희가 인터뷰에 지참할 수 있게 해주시거나 동양인 변호사들의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동양인 직원을 새로 뽑으시는 것은 어떻지요? 7스

성기주 올림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lookjs.com

## 연준, 저금리 상당기간 유지 양적완화 100억달러 추가 축소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지난 달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FOMC) 정책회의에서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정책위원들 사이에 금리인상 관련 문구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연준의 지난달 16~17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정책위원들 중 일부는 연준이 경제에 대한 전망을 밝히며 투자자들을 오도하는 듯한 표현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준은 미 달러화 강세, 인플레이션 둔화, 유로존과 아시아의 경제 성장 둔화 등에 따른 우려로 인해 연준의 현재의 초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계속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사록은 "현재 금리인상 시기와 관련해 연준이 선제적 지침(포워드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상당기간'(considerable time)이란 표현은 금리인상 시기가 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의례적인 약속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오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정책위원은 FOMC 성명문에서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들이 이 문구를 삭제할 경우 연준이 통화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해석되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이 문구를 그대로 두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연준은 지난달 17일 성명을 통해 자산매입 규모를 100억달러 추가 축소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제로금리(0~0.25%)인 초저금리 기조를 양적완화 종료 후에도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는 표현을 되풀이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유지된 공언이다.

이날 의사록에 나타난 위원들 간의 논쟁은 연준이 오는 28~29일 정책회의에선 금리인상 시기와 관련한 문구를 변경하고 조만간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연준은 지난 2008년 3월 이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왔다.

몇몇 위원들은 장기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연준의 관리목표보다 약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달러화 강세가 계속됨에 따라 미국의 국내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둔화하는 상태로,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통화 증발을 막고 재정과 금융의 긴축을 기초로 하는 경제조정정책이다.

acenes@news1.kr

## Call for a Free Trial Class Now!

WEEKLY CLASSES <small>Year Round Critical Reading and Writing</small>	Special Programs Fall 2014
<p style="font-size: small;">청담 ReadWrite의 수업으로 학년별, 수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p> <p><b>1학년과 2학년 :</b> Literary Analysis</p> <p><b>3학년과 4학년 :</b> Reading and Writing Workshop</p> <p><b>5학년부터 8학년 :</b> Expository Analysis, Literary Analysis, Introduction to Creative Writing</p> <p><b>9학년부터 12학년 :</b> Expository Analysis, Intensive Essay Writing, SAT Practice &amp; Review</p>	<p><b>Vacation Days</b> (9:00am- 3:00pm) 학교에 가지않는 공휴일에 숙제와 독서 그리고 리딩과 라이팅 스킬을 배울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11월 11일(화요일)</li> <li>- 2015년 1월 19일(월요일)</li> <li>- 2015년 2월 16일~20일(월요일-금요일)</li> <li>- 2015년 4월 3일(금요일)</li> <li>- 2015년 4월 20일~24일(월요일-금요일)</li> </ul> <p><b>Pizza Nights</b> 책을 읽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내용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짧은 영상을 만들고 작품을 발표하는 재미있는 북클럽 시간입니다. 이번달 선정된 책은 The Giver 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10월 17일 5:00-8:00pm</li> </ul>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www.BostonReadWrite.com/schedule/](http://www.BostonReadWrite.com/schedul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 [info@BostonReadWrite.com](mailto:info@BostonReadWrite.com) 이나 전화 857-404-0170 으로 연락바랍니다. 무료 Trial 클래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 TASTE OF KOREA

# 코리아나

##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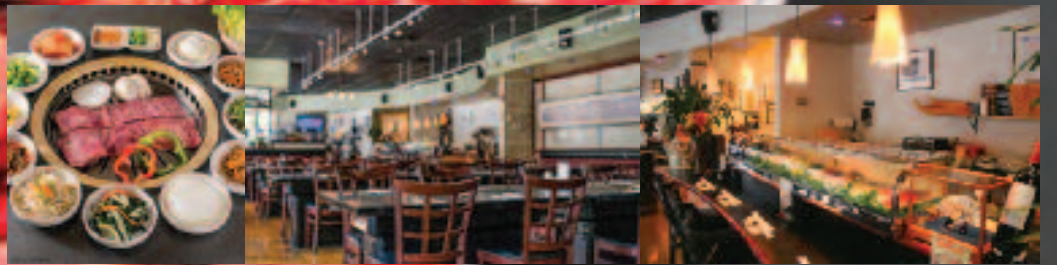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

(서울=뉴스1) 김현 = 9일 오후 치러진 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3선의 우윤근 의원(57, 전남 광양·구례)이 재수 끝에 당선을 결정지었다.

이에 따라 우 신임 원내대표는 박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5월까지 '포스트 박영선' 체제를 이끌고 갈 원내사령탑을 맡게 됐다.

전남 광양 태생인 우 원내대표는 광주 살레시오고와 전남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유·리의 대표변호사와 조선대 법대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3선을 했다.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로 평가받는 우 원내대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지내며 협상가로서 능력을 보여줬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내 개혁추진 국회의원모임 야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독일식 의원내각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개혁론자인 우 원내대표가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을 맡음에

따라 최근 불붙기 시작한 개혁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일 당시 야당측 열람단장을 맡았고, 최근엔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장으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는 박 전 원내대표와 함께 지난 9월30일 최종 타결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주도해 왔으며, 합의문에도 우 원내대표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 점이 부각되면서 향후 세월호 특별법 세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할 책임자로 평가받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2012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바 있어 당내에선 범친노 인사로 분류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후보자 정견발표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완결해내겠다"며 "제게도 책임이 무겁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스무번이 넘는 세월호특별법 실무협상에 가담했다"며 "100개가 넘는 조문을 넣고 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선출된 우윤근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두 손을 맞잡아 들고 있다

당과 20여차례 만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남 광양 △광주 살레시오고, 전남대 △전남대 법학 박사 △사법시험

32회 △법무법인 유·리 대표변호사 △조선대 법대 겸임교수 △제17~19대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책위 제1정책조정위원장 △민주

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pjy1@news1.kr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Quincy College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iddlesex Community College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http://www.ascenglish.com)

#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OCT. 10, 2014 - OCT. 16,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 COLUMBUS DAY BBQ FESTIVAL!

Happy Columbus Day!  
 콜럼버스 데이 바베큐도 H마트와 함께 하세요!  
 you discover SAVINGS. FALL BBQ SPECIALS ARE WAITING.

- BEEF SHORT PLATE 냉동 우삼겹살** \$7.99/lb.
- FRESH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BEEF TOP BLADE STEAK** \$6.99/lb.
- 양념 소불고기 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FOR BULGOGI** \$6.99/lb.
- BB-17/17" ea. BRENTWOOD OUTDOOR BARBEQUE GRILL** \$29.99
- CHUNGJUNGONE SEASONED SOYBEAN PASTE** 1.1 lbs. \$1.99
- 해오름 쌈무 HAIOREUM PICKLED RADISH WRAP** All Flavors/12.34oz. 2\$4

### 5TH ANNIVERSARY SWEEPSTAKES

**LUCKY WINNERS! CONGRATULATIONS!**  
 H마트 MA 진출 5주년 기념 고객 감사 경품 대추제 행운의 당첨자

**1ST PRIZE: \$1,000 HMART GIFT CERTIFICATE (1 WINNER)**  
 4030XX8539 Youpoon Eugenia

**2ND PRIZE: \$300 HMART GIFT CERTIFICATE (5 WINNERS)**  
 4030XX3964 Hee Kyug Park  
 4030XX9044 Cheng-Chi Chuang  
 4030XX3515 Meishien Lien  
 4030XX6717 Sunyong Park  
 4030XX9440 Juhan Yoon

**3RD PRIZE: \$100 HMART GIFT CERTIFICATE (10 WINNERS)**  
 4030XX7098 Kisuk Park  
 4030XX4272 Hiroaki Tokushige  
 4030XX8977 Jeosoo Lee  
 4030XX9196 Prbbcha Suksoonboon  
 4030XX8897 Junghee Lee  
 4030XX3656 Liyuan Silva  
 4030XX6502 Yuna Lee  
 4030XX4754 Carol Wu  
 4030XX9071 Geumhee Cho  
 4030XX6656 Aekyung Jang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8oz./pkg. \$3.99

**Fuji Apple** 햇 후지 사과 lb. \$1.49

**Persimmon** 단감 박스 box \$14.99

**Napa Cabbage** 배추 박스 box \$14.99

**Koimo Sweet Potato** 햇 코이모 고구마 lb. \$1.69

**Beef Bones** 사골 lb. \$1.49

**Chicken Drumstick** 치킨 드럼스틱 lb. \$1.49

**Live Wild Eel** 자연산 활 장어 lb. \$10.99

**Cooked Whelk Meat** 굴뱅이살 lb. \$9.99

**Salted Mackerel** 자반 고등어 400-600's/lb. \$3.99

**GLOBAL Unagi Kabayaki** 글로벌 우나기 7oz./pkg. \$6.99

**TONGTONGBAY Premium Oyster** 통통배 청정생굴 8oz./pkg. \$3.49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s. \$12.99

**KOKUHO Extra Fancy Med. Grain Rice (Yellow)** 국보 쌀 (옐로우) 15 lbs. \$10.99

**NONGSHIM Bowl Noodle Soup** 농심 사발면 박스 Hot & Spicy/Shin 3.03oz. x 12ea./pkg. \$9.99

**HAIOREUM Korean Style Beef BBQ Sauce** 해오름 소불고기/갈비 양념 2.11 lbs. \$3.99

**HAIOREUM Canned Bai Top Shell** 해오름 굴뱅이 캔 14.1oz. \$4.99

**HAIOREUM K Dumplings** 해오름 손골 만두 All Varieties/1.57 lbs. \$4.99

**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 Somen** 해오름 막국수 5 lbs. \$4.99

**CHORIPDONG Seasoned Roasted Dried Squid** 초립종이 오징어재 Maekbanseok/Bulgogi 7.04oz. \$6.99

**SUNSHINE FARMS Grade A Cage-Free Medium Eggs** 선샤인 팜 미디움 달걀 1oz./for 2\$4

**POPCORNERS Popped Corn Chips** 팝콘너스 칩 All Flavors/5oz. \$0.99

**GABSAHANSIL Sitting Cushion** 감사한실 방석 All Colors/ea. \$11.99

**ZOJIRUSHI Indoor Elec. Grill** 조지루시 인도어 전기 그릴 EB-CC15/ea. \$59.99

### New HAIOREUM Product Launch!

**Berry Berry Fresh.**  
**Minty Minty Refresh!**

무설탕 원료로 만들어져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해오름 무설탕 자일리톨 껌 출시!

# "블랙홀론 근거 없어" 여야, 박 대통령과 개헌 신경전

## 이재오·박민식 등 여당에서도 박 비판 이어져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개헌을 둘러싼 박 대통령과 국회 간의 신경전이 시작된 분위기다.

집권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기류에 발맞춰 개헌 논의에 신중한 자세를 잡기 시작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개헌 얘기가 많아지고 있어 역대 정권의 상황과 비교하면 어느 때보다 개헌 논의의 활동반경이 넓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의도에서는 7일에도 여야를 불문하고 전날 박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여당에서는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금년에 논의하면 블랙홀이고 내년에 논의하면 블랙홀이 아니냐. 정부는 내년에는 경제살리기를 안 하느냐"고 박 대통령의 언급을 직접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에 전념하는 건 임기 5년 내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정부가 개헌 발의를 안 하겠다고 하니 국회가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헌 논의는) 지금이 안 되고 다음은 되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다음 총선과 대선을 멀리 남겨 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의원들이 지금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높다. 60% 이상의 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라며 말했다.

중도·개혁 성향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역대 대통령마다 되기 전에는 개헌하겠다고 해놓고 임기 초반에는 이른바 블랙홀론(論)으로 걱정들이 많은데, 이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며 "지금 대한민국 국가 수준 등을 보면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한다고 국민들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거기에 관심 가질 형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헌 논의는 지금 해도 절대 빠르지 않고 오히려 지금을 놓치면 사실 이번 개헌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개헌이 최소 1년 6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못하면 (20대) 총선 전에는 못하고, (이후) 대통령 임기 말에는 또 다시 개헌이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 국회 개헌특위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내에서는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 윤상현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에 반대하고 있어 개헌 문제가 계파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에서도 이날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부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국회에는 이미 152명이 참여하는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있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헌모임 주최로 열린 최태욱 교수 조찬강연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다"며 "이미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 있고, 공약으로도 얘기한 바가 있다"며 "이제는 개헌에 대해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트위터

를 통해 "박 대통령 '경제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국회 '개헌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제 발전과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 논의 안하는 지금,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없지만 공정한 경제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true@news1.kr

## 박 대통령 "개헌 논의, 또 다른 '블랙홀' 유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6일 오전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다.

대신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정부·여당이 제출한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주문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 지으면서 5개월째 계속돼 오던 국회 공전(空轉) 상황이 종료된 데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들스런 일"이라고 평가한 뒤, "이제 모두 정치적 대립에서 벗어나 경제 활성화와 민생 중심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를 우선할 수 없다"면서 "개헌 논의 등 다른 것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키면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개헌 논의에 빠질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해 산적한 법안 처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국정 또한 재차 혼란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국가혁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주요 법안의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거나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다 제2기(정부) 경제팀이 살려낸 경제 활성화의 기대가 다시 약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련 수석과 각 부처는 이번 (정기)국회 심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감안해 각 법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특히 30개 핵심 민생법안에 대해선 그 필요성과 통과가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일명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예로 들어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국회가) 우선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 살리기에 한 톨이 아까운 때에 부정부패는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이른바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는)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 구조돼 다행이지만, 아직도 유람선 관리가 소방방재청과 해경, 지자체 등에 분산돼 있는 점, 유람선의 선령(船齡)

제한이 없는 점 등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국가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또한 국회 처리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엔저(円低) 현상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해선 "일부 지표의 단기적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위험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긴 호흡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구조적 취약성을 치유하면 (나라) 경제 기초가 튼튼해지고 위기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과거 정부에선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관성과 의지가 약화돼 오히려 공기업 확대와 부채 증가만 초래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 정부에선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른 중점관리 기관 등의) 중간평가에서 우수사례를 발굴, 아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다른 기관으로 확산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힘합해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꼭 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그리고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도 차질 없는 준비 등을 당부했다.

ys4174@news1.kr

##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개헌해야"

### "헌법상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 겸해 책임 물을 수 없다"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5선 중진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7일 "60%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로 지금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87년도에 헌법이 개정돼 5년 단임제 대통령을 6년 모시면서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발전했지만 내용적 민주주의는 기대에 못 미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정국을 둘러싸고 4월부터 5개월 동안 국정이 거의 표류됐지 않나"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내각 수반이, 행정부 수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을 겸하고 있어 책임을 물을래야 물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절차적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선거에서 단 1%라도 이기면 1% 이긴 사람이 권력을 다 갖고 1% 진 사람은 국민들의 48% (지지를) 받았건 49%를 받았건 소외된다"며 "유럽

과 마찬가지로 다수적 민주주의가 아니고 합의제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소수 의견도 합의 내용에 포함하는 민주주의로 내용이 발전해야 된다"고 개헌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묻는 질문에 "합의의 민주주의를 이끌어내려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내각은 연정하고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만 책임을 져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다. 정당의 의식수대로 내각을 구성하는 일종의 내각 연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4년 중임으로 바꾸는 것에 관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5년 하는 것도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4년 중임한다 그러면 (대통령을) 8년 하는 것 아닌가"라며 "완전히 개악이 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 "지금 다음 총선과 대선을 멀리 남겨 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의원들이 지금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girin@news1.kr



맛있을수 없는 한국의 맛을 압구정에서 느껴보셔도

# 압구정

압구정이 **갈비**와 **냉면** 전문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 617-527-7888

단체석 노래방 시설 완비/뉴튼 센터에서 차로 3분 거리

<보스톤 처음으로 **즉석**에서 직접 뽑는 냉면을 맛보세요>

##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의 20% 할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매니-페디큐어  
왁싱  
각종 펌

웨딩헤어+메이컵  
일요일도  
예약받습니다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mailto: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일산케이 서울지국장 기소

## 대통령 남자 관계 허위 적시 혐의...구체적으로 취재 근거 제시 못해

(서울=뉴스1) 전주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해 고발당한 가토 다쓰야(48)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8일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가토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토 지국장은 지난 8월 기사를 작성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박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8월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한 기명 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7시간 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가토 지국장은 칼럼에서 박 대통령이 당시 한 남성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당일인 4월 16일 박 대통령이 낮 7시간에 걸쳐 소재 불명이었다는 팩트가 나왔다'는 내용도 작성했다.

가토 지국장은 23년간 기자 생활을 거쳐 4년여간 한국 특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 및 정부관계자

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가토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가토 지국장은 3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반성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증거가 정보지나 정치권 소식통 등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보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 외에 달리 취재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가토 타츠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18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 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갈 곳 없는 돈 코스닥으로...

(서울=뉴스1) 이지예 기자 = 코스피의 그늘에 있던 코스닥이 탄생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 코스피는 7월말 장중 2093을 고점으로 내리하락, 8월19까지 밀렸다. 그러나 코스닥은 코스피가 무너진 8월 이후 최근까지 내리 올랐다. 9월 25일 583.68로 장중 고점을 기록한 뒤 하락세지만 낙폭은 코스피에 비해 덜하다.

9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140조2018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시총 100조원선을 사수하며 꾸준히 덩치를 키웠다.

올들어서는 6월 시총 130조103억원을 달성한 뒤 7월(130조5645억원), 8월(139조1522억원) 잇달아 새로운 기록을 썼다.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닥 '사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8월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10.98%(15조2857억원)로 2008년 10월(13.65%)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해 비중은 10.90%로 소폭 줄었지만 2년여 래 최고 수준은 유지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201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코스닥의 외국인 비중은 지수 등락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가세를 이어갔다. 작년 12월 9.87%에서 1월 10.45%로 올라선 뒤 나날이 세를 불렀다.

지기호 LIG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박근혜정부 들어 중소기업 우대 정책 등이 강화되면서 코스닥 우량주 위주로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하반기 유가증권시장 만큼의 실적 부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추세적인 유입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연초 이후 외국인이 가장 선호한 코스닥 종목은 반도체시스템장비 전문 업체 원익IPS다. 삼성전자 투자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 회사에 외국인은 모두 2125억7100만여원의 이 회사 주식을 샀다. 최근 삼성전자가 팹릭에 최대규모 반도체 라인을 만든다는 소식에 모멘텀을 또 받았다. 바이오업체 메디톡스(1194억9000만원), 카지노업체 파라다이스(1125억300만원) 등도 인기를 끌었다.

세계최초로 액상형 보톡스(메디톡스, 브랜드명 이노톡스)를 개발한 메디톡스 주가는 8월12일 14만8400원에서 8월 23만7900원으로 경추뒤었다.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를 하나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중소기업도 한몫하고 있다. 바이오는 창조경제 중점 지원사업중 하나다.

코스닥의 '호황'은 중소형펀드의 수익률도 끌어올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통계를 보면 국내 설정된 10억원 이상의 액티브주식중소형펀드는 연초 이후 17.22%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5년 장기수익률 역시 78.94%로 국내주식형 펀드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적을 냈다.

개별 펀드로는 '현대인베스트먼트 로우프라이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C-F'가 같은 기간 31.26%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프랭클린오퍼튜니티증권자투자신탁(주식)ClassC-F', '현대강소기업증권투자신탁1(주식)종류C-s', '동양중소형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1(주식)ClassC', '알리안츠Best중소형증권투자신탁(주식)(C/C5) 등도 수익률이 20%를 넘었다.

ezyeah@news1.kr

## 일 언론, 전 지국장 기소 "언론자유 침해" 반발

### 요미우리,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둘러싸고

### 해외 언론기소 이례적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48)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8일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데 대해 산케이를 비롯해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산케이신문은 9일자 컬럼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와 관련, "언론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히 이례적 조치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사법 당국은 신속하게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9일 오전 자민당의 회의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 문제가 다뤄졌다고 보도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소홀히 하는 행동에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는 다키나미 히로후미 참의원의 발언 등을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둘러싸고 해외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고 전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한일 양국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무척 유감이고 우려스럽다"는 기사다 후미오 외상의 기자회견 발언을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와 기소 과정을 전하면서 "

한국 국내법을 근거로 해외에서의 보도에 대해 입건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한 한일 관계에 다시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일본 언론들은 쟁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도 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사키 대변인은 회견에서 "기소된 보도는 알고 있고 처음부터 수사 상황을 지켜봐 왔다"며 "우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 국내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올해 2월 발표한 2013년 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국가보안법 등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일 관방장관, "한일관계 관점에서 무척 유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48)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데 대해 9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자유와 한일 관계의 관점에서 무척 유감이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

서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고 법 집행은 금지해야 한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상식이다"며 "오늘 중으로 한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우려를 전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전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가토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8월 기사를 작성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박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 관계가 있는 것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처럼 허위로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하나여행사 HANA TRAVEL



- 국내/국제 항공권 할인
-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중남미, 하와이, 캐나다, 알래스카 등 관광 패키지

전문가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설계하세요.

**617-713-4262(HANA)**  
email: hana.travel@gmail.com

**Toll Free 1-800-368-6977**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함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따뜻한 봄날의 시작을  
**헤어스타일 영이** 책임지겠습니다"

남자컷 25불 / 여자컷 30불 / 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 / 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 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 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명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 다음카카오 "실시간 검열, 불가능"...카톡검열의 진실은?

## 다음카카오측 감청 요청 147건 진행됐다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화 실시간 모니터링 등 이용자가 우려하는 문제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냈다.

다음카카오는 실제 감청요청이 147건 집행됐다고 고백하면서 그동안 이용자의 원성을 샀던 실시간 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료 제출 방식과 내용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조목조목 정리했다.

다음카카오는 "최근의 검열과 관련된 이슈에 진솔하고 적절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많은 이용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며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는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대화내용이 암호화되는 비밀대화, 수신확인 메시지 등의 강력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다음카카오가 밝힌 '카톡 검열' 논란과 관련된 일문일답.

◇실시간 검열, 아예 불가능...제출한 대화는 최대 1주일치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가능한가?

▶다음카카오=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은 이를 제공 기술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겠다.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의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결국 실시간 자료가 나간건가?

▶다음카카오=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 다만 감청 영장에 의한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영장에 기재된 요청 기간 동안 있었던 대화내용이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우리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마치 우리가 감청 요청과 그에 대한 처리를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됐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카카오톡은 감청 요청 자체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어떤 기사에서 실제로 집행된 자료가 공개됐다. 어떻게 된건가?

▶다음카카오=감청 영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려 혼동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일반 압수수색 영장과 감청은 어떻게 다른가?

▶다음카카오=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은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과거의 대화 내용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예컨대 수사 대상자의 하루치 대화내용이 압수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압수수색 영장과는 별도로 통신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밀보호법에 따른 감청 영장, 이른바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일부 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하므로 미래의 대화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감청 영장 집행시 카카오톡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해, 감청 영장에 기재된 요청 기간의 대화내용을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톡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모드(종단간 암호화 기술) 적용시 감청 영장 집행시에도 대화내용 확인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감청 요청이 접수됐나?

▶다음카카오=감청 요청은 국가안보 등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는 영장에 의해 집행된다. 실제로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요청은 2013년 86건, 2014년 상반기 61건이었다. 이 요청건수는 앞으로 다음카카오가 발간할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대화내용 2~3일만 저장...비밀대화도 만들어"

-최근 수사 대상자 1명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하며 친구 3000명까지 검열당했다는게 사실인가?

▶다음카카오=해당 수사 대상자가 참여 중인 채팅방의 대화내용 하루치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친구 3000명 각

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은 아니다.

-수사 대상자의 두 달치 대화내용이 제공되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

▶다음카카오=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 내용을 요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의 대화 내용만이 제공됐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요청했다고 해서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내용 중에 아직 서버에 남아 있어 전달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게 되며 서버 저장기간이 지나 서버에 남아있지 않다면 제공할 수 없다.

hkmaeng@news1.kr

## '사찰·감청' 논란...카톡보다 라인 타격 더 커

### 국회 미방위 전병헌 의원 "국산 메신저 이용자 168만 줄어..군소 메신저 감소 더 커"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최근 '검찰의 모바일 메신저 사찰·감청 논란'과 관련해 국산 모바일 메신저 일 평균 이용자수가 약 168만명 줄었으며, 특히 압도적인 국내 1위 카카오톡보다 라인·마이피플·네이트온 등 군소 메신저의 이용자 감소 타격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웹사이트분석업체 랭키닷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톡을 비롯한 국내 모바일 메신저 일 평균 이용자가 최근 1주일 새 167만여명 감소했으며, 특히 라인·네이트온 등 군소 메신저의 이탈 비율이 더 높았다"고 9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카카오톡의 9월 셋째

주(9월21~27일) 일 평균 이용자수는 2646만명이었으나 9월 넷째주(9월28일~10월4일) 2606만명으로 40여만명(1.5%) 줄었다. 국내 2위 라인은 타격이 더 심각했다. 9월 셋째주 239만명에서 넷째주 132만명으로 107만명(44.7%) 감소했다. 이용자수가 절반 가까이 준 것이다. 라인은 국내 사용자 카카오톡보다 훨씬 작지만 국외에서는 5억명에 육박하는 가입자수를 확보하며 카카오톡을 오히려 능가하는 메신저다.

이 밖에도 마이피플이 5만여명, 네이트온이 약 17만명 줄어드는 등 타격을 입었다. 전 의원은 "카카오톡은 충성도가 높고 저변이 넓어 상대적으로 이용자 숫자가 덜 줄었으나, 이에 비해 군소 메신저들

은 검찰의 사찰·감청 논란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반면, 러시아 개발자가 독일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하는 텔레그램의 이용자는 일 평균 이용자수는 52만여명으로 1주일 전보다 20배 이상 늘었다. 더구나 한글 서비스도 새로이 출시돼서 이용자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기순위 12위권에 머물던 카카오톡은 6위까지 하락했으며, 네이버(라인)와 다음카카오(카카오톡)의 주가는 사찰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고점 대비 각각 10% 안팎 떨어졌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단순히 카카오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불신이 한국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

국내외 모바일 메신저 일 평균 이용자

구분	9월 3주 (9/21-9/27)	9월 4주 (9/28-10/04)	증감	증감율
카카오톡	26,463,021	26,057,155	-405,866	-1.5%
라인	2,392,766	1,322,065	-1,070,701	-44.7%
마이피플	592,611	545,316	-47,295	-8.0%
네이트온	549,209	377,409	-171,800	-31.3%
딕톡	416,313	457,433	41,120	9.9%
갯은	211,141	188,922	-22,219	-10.5%
합계	30,625,061	28,948,300	-1,676,761	-5.5%

\*자료: 랭키닷컴(일평균 이용자 수지 인용). 단위:명

다. 그는 또 "메신저 엑소더스 현상은 지난 8월 기준 4천만명에 이른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문자와 음성통화보다 모바일 메신저 이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며 "카카오톡이 프라이버

시모드 도입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등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잘못된 정책과 카카오톡 사찰 및 감청논란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up@news1.kr

#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샷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희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적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인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보스톤 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Seoul Soup in Allston  
**서울설령탕**  
SEOUL SOULLONGTANG

**SUMMER SPECIAL** 냉면개시!

**서울 SEOUL**  
KOREAN · SUSHI · WINES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6 Cambridge St, Boston  
617.973.6680  
SeoulFoodBoston.com

##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답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10주년 감사 부흥성회 10월17일(금)-19일(주일)

## “삶의 전성기, 신앙의 전성기”

김한덕 목사 (강경제일교회)  
정영현 목사 (로담교회)  
김용원 목사 (동산교회)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103 LADY SARAH'S CANYON  
**세빛교회**  
NewLightKC.org



##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 성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30 Avonlea Drive for Pastoral Care and Christ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양뚜안 다블뤼 한인 성당에서는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45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stdaveluychurch.org  
Mass: 11:30am(교중미사), 4:30pm



##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오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http://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http://www.bostonrenewal.org)

##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매매, 구입, 임차/사업체알선

**Century 21**  
Avon

**김택운**  
Realtor

Cell: **(617) 678-9330**

Fax: (617) 497-9947 E-mail: tkim@century21avon.com  
167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엔티비(N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 Welcome, TBO

티보 개학기념 학생할인  
**폭탄세일!**

**\$14.99** (2년 약정시)

**학생 할인**  
2014년 9월5일-10월4일까지  
보스톤 코리아 티보가  
학생 여러분께 BIG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규가격: \$34.99

-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4.99(2년 약정시)
-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2년 약정시)
- 3. 티보 런칭기념 특별할인 연장!**  
10월 30일까지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2년 약정시, 3개월 후 \$34.99로 과금)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617.650.6656

KBS, MDC, SBS, SBS Plus, tvN, XTV, O'live, OCN

The Best OnDemand, TBO

## “매주 2만여명의 독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 보스톤코리아 이메일 발송 서비스

-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보기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보스톤 코리아가 매주 신문 발행과 함께 이메일로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을 전세계 어디서나 웹사이트에서 또는 지면보기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소식, 깔끔한 디자인 새로운 소식을 깔끔한 디자인으로 전해드립니다.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저희 보스톤코리아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인만 2014도 볼 수 있어 보스톤 및 미주 생활 가이드로 교육에서 의료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eBook 또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보기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세요!  
픽업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스톤코리아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이메일 보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서강대 동문 여러분을 가을 나들이에 초대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서강대 동문 모임으로 새로운 동문들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보스톤 서강대 동문회(회장 이수범)가을 모임

시간: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노스보로 소재의 토가스 농장(Tougas Farm)

점심식사 장소: 뱀부파인 아시안취진 앤 스시바(Bamboo Fine Asian Cuisine and Sushi Bar)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 이수범 회장(617-833-2694)

# Crouser & Suh PLLC

##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 비지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조규성**  
민법/상법 변호사



**양선영**  
이민 변호사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 NFL 파워랭킹, 시호크스-브롱코스 양대 산맥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NFL 정규시즌은 5주차 경기를 모두 마치고 중반으로 향하고 있다. 시즌 초반 양상은 예상대로 지난 시즌 수퍼볼에서 맞붙었던 시애틀 시호크스와 덴버 브롱코스가 양대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

시즌 개막전부터 패배를 기록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롤러 코스터를 타는 듯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 4주차 경기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에게 충격적인 대패(14대 41)를 당하더니, 지난 주 경기에서는 NFL 유일한 무패 팀이었던 신시내티 벵갈스에게 대승(43대 17)을 거두었다.

초반 탐색전이 끝난 현재, 스포츠 전문 매거진 블레처 리포트(bleacherreport.com)에서 매진 NFL 파워랭킹 상위 4팀과 패트리어츠의 순위를 살펴보자.

## 8위 New England Patriots (3승 2패)

4주차 경기에서 패트리어츠가 치프스에게 졸전 끝에 패배했을 때, 많은 이들이 탐 브래디와 패트리어츠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5주차 경기에서 브래디와 패트리어츠는 벵갈스를 상대로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다.

분명 지금의 패트리어츠는 극강의

공력력을 보여줬던 2007년의 패트리어츠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하기 까다로운 균형 잡힌 팀이다.

패트리어츠는 가장 불안한 요소였던 오펜시브 라인이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시즌 초반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던 코너백 브랜든 브라우너와 와이드 리시버 브라이언 팀스가 이번 주부터 출전할 수 있게 된다. 패트리어츠가 공수 양면에서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 4위 Indianapolis Colts (3승 2패)

콜츠는 오펜시브 라인이 강력한 것도 아니고, 뛰어난 러닝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수비수 중에 이름을 날리고 있는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콜츠는 리그 최고의 쿼터백을 보유하고 있고, 콜츠 선수들은 상대팀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콜츠는 시즌 초반에 계속해서 NFL 상위 팀들을 상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패배를 하더라도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장에 쿼터백 앤드류 러크이 있는 한 콜츠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 3위 San Diego Chargers (4승 1패)

차저스의 초반 기세가 대단하다. 차저스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팀으로 꼽히는 시호크스



벵갈스전에서 승리한 패트리어츠는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를 물리치고, 동부로 날아와 빌스를 힘으로 제압했다. 지난 주에는 제츠에게 한 점도 내주지 않고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쿼터백 필립 리버스를 중심으로 한 차저스의 공격은 리그 정상급이다. 차저스를 이끌고 있는 마이크 맥코이는 올해의 코치상을 받을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차저스는 현재 브롱코스와 함께 AFC 최고의 팀이다.

## 2위 Denver Broncos (3승 1패)

브롱코스는 무패 팀이었던 카디널스에게 한 수 위의 기량을 선보이며 승

리를 거두었다. 브롱코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팀들은 쿼터백 페이튼 매닝을 중심으로 한 브롱코스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카디널스와의 경기에서 매닝은 NFL 역사상 두 번째로 500개 이상의 터치다운을 기록하였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한두 주 내에 매닝은 브렛 파브르가 보유하고 있는 508개의 터치다운 기록을 넘어서 NFL 역사를 새로 쓸 것이다.

## 1위 Seattle Seahawks (3승 1패)

시호크스는 프라임 타임에 치러진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했지만, 레드스킨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시호크스는 원정 경기, 특히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하는 동부에서의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팀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결국 경기에서 승리한다. 이런 면에서 시호크스는 NFL 최고의 강팀이다.

jsi@bostonkorea.com

##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63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 나홀로 라운딩

치로 그린에 공을 올리고, 또다시 8번 아이언으로 8번 퍼팅을 하고 나니가 흠아웃을 할수 있었다. 파5 홀에서 4번에 그린에 올라가서 2번 퍼팅을 하고 나니가 보기를 했다.

두번째 홀의 티그라운드를 보니까 사람들이 티샷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홀을 건너뛰고 첫 번째 홀 그린 뒤에 있는 5번째 티박스를 보니 비어 있어서 거기서 골프를 이어나갔다. 역시 파5홀이었는데 3번째 샷이 그린 오른쪽에 있는 병커에 공이 빠졌다. 역시 8번 아이언을 많이 오피해서 병커샷을 했는데 운 좋게 홀 속으로 공이 빨려 들어가 버렸다. 참 기분이 좋았다. 8번 아이언 하나로 티샷에서부터 퍼팅까지 하는데 버니까지 잡았으니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다음 홀부터는 8번 아이언으로 하는 퍼팅이 역시 제대로 되질 않아서 3홀 연속 더블보기를 범했다. 8번 홀을 마치고 9번 홀로 가기전에 건너 뛰었던 2번, 3번, 4번 홀들을 보기 플레이로 마치고 나서 9번째 홀로 향하였다. 3번 만에 그린에 올렸지만 3번 퍼팅을 하고 나니 더블보기. 아홉번째 홀 그린에서 흠아웃을 하고 시계를 보니 5:57PM. 한시간 12분만에 9홀을 돈 셈이다. 골프를 쳤다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골프를 하면서 산책을 했다

고 생각하면 너무도 재미있는 산책의 시간이었다. 골프를 하는 사람이 골프 클럽 하나 들고 사람들 별로 없는 골프장을 라운딩 하는 것은 아마도 가장 행복한 산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클럽 하나 들고 혼자서 라운딩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의미가 있다. 가장 먼저는 연습에 효과가 있다. 아이언 샷이 잘 안된다고 생각되면 그 아이언 하나 들고 9홀 정도 돌고 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언과 친해져서 잘 다루게 될 수 있다. 드라이버가 잘 안되면 드라이버 하나들고 티샷은 물론 세컨샷도 페

어웨이 위에서 티 콧고 티샷을 한다. 거리가 짧게 남았으면 짧은대로 그것에 맞게 스윙스 피드를 조절하면 더욱 효과적인 연습이 된다. 짧은 피칭샷을 연습하고 싶으면 샌드웨이 하나 들고 9홀을 돌고 나면 아마도 가장 효과가 좋은 피칭 샷 연습이 될것이다. 클럽 하나 들고 혼자서 라운딩을 하는 것은 골프스윙의 기술적인 연습 효과와 아울러 심리적인 안정감과 정리하는 시간을 갖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가장 단순한 가운데서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다.



퇴근길에 집으로 향하다가 문득 골프가치고 싶어 핸들을 돌려 골프장으로 갔다. 트렁크에 있는 골프가방에서 8번 아이언 하나 꺼내서 한 손에 들고 골프공 2개 꺼내서 바지 주머니에 집어 넣었다. 프로샵에 들러 인사하고 North 코스에 있는 첫 번째 홀로 향했다. 티그라운드에 공을 하나 내려놓고 스마트폰에 있는 시간을 보니 4:45PM.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궁금하기도 해서 잘 기억해 두었다. 티그라운드에 내려놓은 공을 8번 아이언으로치고 종종 걸음으로 공을 향하여 걸어가다. 아이언 하나만 들고 걸었기 때문에 금방 공이 있는 페어웨이로 갈수 있었다. 세컨샷도 같은 8번으로, 세 번째 샷도 8번으로 치고 나니가 파5인 첫 번째 홀의 그린 근처까지 공을 보낼수 있었다. 또다시 8번 아이언으로 런닝 어프로

# 기성용, 슈틸리케호 '첫 주장' 낙점

(고양=뉴스1스포츠) 권혁준 기자 = 기성용(25·스완지시티)이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첫 주장으로 낙점됐다.

슈틸리케 감독은 9일(이하 한국시간)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벌어진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기성용을 주장으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골키퍼를 주장으

로 선임하는 것은 꺼린다고 언급한적이 있다"면서 "중앙 미드필더인 기성용은 공격과 수비에 모두 관여하고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말했다.

이어 "기성용의 나이가 대표팀의 중간이라 최고참부터 막내 선수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갖췄다. 선수로서 충분한 경험도 쌓았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리에 동석한 기성용은 "영광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 운동장 안팎에서 선수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주장으로서 경기장 안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처음으로 국가대표로 데뷔한 기성용은 처음으로 대표팀 주장 완장을 차게 됐다.

starburyny@news1.kr

##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 보여 주겠다”

(고양=뉴스1스포츠) 임성일 기자 = 울리 슈틸리케 감독 부임 후 처음으로 주장에 선임된 기성용이 다부진 각오를 보였다.

슈틸리케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한국은 10일(이하 한국시간)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파라과이와 경기를 치른다. 파라과이와의 경기를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호텔에서 공식 기자회견에서 슈틸리케 감독은 기성용을 공식 주장으로 발표했다.

기성용에 대해 슈틸리케 감독은 필드 플레이어라는 점과 함께 많은 경험, 선수들간의 의사소통을 연결할 수 있는 나이대라는 점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기성용은 “개인적으로 주장이라는 자리는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라며 “운동장에서 최고의 경기를 펼쳐야 할 뿐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선수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기성용은 지난 7일 소집돼 이틀 동

안 이상 없이 훈련에 참가하며 팀 원들과 손발을 맞췄다. 파라과이와의 경기에서도 한국의 중원을 책임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평가전을 앞둔 기성용은 “소집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했다”며 “항상 보여줬듯이 최선을 다해 감독님이 원하는 경기 내용을 펼치겠다. 이와 함께 좋은 경기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 르브론 제임스, 타이거 우즈 제치고 '브랜드 가치' 1위 등극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미국프로농구(NBA)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미국)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운동선수로 선정됐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8일(한국시간) 스포츠 각 분야의 주요 가치를 매겨 순위를 발표했다. 이 중 선수부문 '브랜드 가치' 1위로 제임스가 뽑혔다.

포브스는 "제임스는 약 3700만달러(약 397억원)의 추산 가치로 골프의 타이거 우즈(미국)를 제치고 선수 브랜드 가치 부문 정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2위 우즈의 브랜드 가치는 약 3600만달러(386억원)로 추산됐다

그 뒤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3200만달러로 3위, 남자 골프의 필 미켈슨(미국·2900만달러)이 4위, 크리켓 스타 마헨드라 싱 도니(인도·2000만달러)가 5위에 올랐다.

가장 가치있는 팀으로는 메이저리그의 명문팀 뉴욕 양키스가 꼽혔다. 양키스는 브랜드 가치 5억2100만 달러(약 5595억 원)를 기록했다.

2위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약 4억 8400만 달러), 3위는 같은 리그의 FC 바르셀로나(약 4억 3800만 달러), 4위는 미식축구리그(NFL)의 델러스 카우보이(약 4억 400만 달러), 5위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약 3억 9900만 달러)였다.

starburyny@news1.kr



기성용이 7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파주 축구 트레이닝 센터(NFC)에 입소하고 있다. 축구대표팀은 10일 파라과이(천안), 14일 코스타리카(상암)와 평가전을 치른다.

## [U-19 챔피언십] '백승호 썬기골' 한국, 베트남 대파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19세 이하(U-19)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십 첫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며 대회 2연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상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9일 미얀마 네피도의 운나 데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C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베트남에 6-0으로 이겼다.

김건희(고려대)가 멀티골을 터트리며 승리를 견인했고 후반 교체 투입된 백승호(바르셀로나)가 팀의 5번째 득점포를 쏘아 올리는 등 대승을 거뒀다.

한국은 일방적인 경기를 보이기도 결정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은 전반 45분 이정빈(인천대)이 선제골을 뽑아내며 전반을 1-0으로 마쳤다.

후반 들어 한국은 골 폭풍이 몰아쳤다. 김건희가 후반 10분 오른쪽 슈팅으

로 추가골을 성공시켰고, 5분 뒤 심제혁(서울)이 헤딩슛으로 3-0으로 점수를 벌렸다.

한국은 후반 21분 황희찬(포항제철고)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4-0으로 앞서가던 한국은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 백승호가 교체 투입되며 공격에 힘을 보탤다. 백승호는 투입된지 4분 만에 호쾌한 중거리 슈팅으로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한국은 후반 추가 시간 김건희의 썬기골로 경기를 매조지했다. 이번 대회는 내년에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월드컵 예선을 겸한다. 상위 4개 팀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다.

2012년 열린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던 디펜딩 챔피언 한국은 일본, 중국, 베트남과 한 조에 속해 있다. 한국은 11일 오후 9시 중국과 2차전을 치른다.

alexci@news1.kr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다국적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499,900  
**Sharon, MA**  
3 Beds, 2 Baths, 2235sf.  
Flexible floor plan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Janice Lee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749,900  
**Westwood, MA**  
3 Beds, 2 Baths, 2475 sf.  
Updated kitchen, windows, roof, hot water tank etc.  
이현주 401-935-3397



\$725,000  
**Brookline, MA**  
2 Beds, 2 Baths, 1523 sf.  
Near BU, Coolidge Corner  
Sunny 2 bedrooms  
Jason Jeon 617-642-5670



\$465,000  
**Newton, MA**  
3 beds, 1 bath, 1180 sf.  
Wonderful 3 bedroom single family on quiet side street  
OT Kim 617-620-8242



\$359,000  
**Billerica, MA**  
3 beds, 2.5 baths, 2694 sf.  
Near Commuter Rail  
Nice neighborhood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부동산 관련 모든 상품 / 2014년 10월 / 1000여 명의 에이전트 /  
전국 100여 개 도시 / 200여 개의 오피스 / 100여 개의 에이전트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줄 승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 Restaurant



\$799,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 SAT Academy



\$50,000  
Brookline, MA  
SAT Tutoring Academy  
Near many good schools  
Close to Route 9 and I-95  
Julie H. Lee 401-935-3397

###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 Nail Salon



\$280,000  
Burlington, MA  
Near Burlington Mall  
운영 잘 되는 네일 살롱  
Anna Jung 617-780-1675

### Dry Cleaner



\$180,000  
Salem, MA  
Downtown Salem area  
Well established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 Restaurant



\$299,000  
Northampton, MA  
Restaurant w/ liquor license  
Well maintained location  
Kwang O. Kim 617-792-8615

### Restaurant



\$869,900  
Brookline, MA  
Heart of Coolidge Corner  
Surrounding apartments,  
dorms, condominiums  
Anna Jung 617-780-1675

### Deli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 Deli



\$99,900  
Chelsea, MA  
Amazing Deli with  
lottery, cigarette, ATM for sale  
Anna Jung 617-780-1675

### Grocery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 Jewelry Business



\$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 병원 건물 렌트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0, No.40 October 10 201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56

전주명인 **솜씨**이운 **비빔밥**집 탄생

**보스톤에서 만난 전주 전통의 맛, 우리(WooRi)**

우리(WooRi)  
9 Medford Street, Arlington, MA 02474  
781-859-8558

선 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1면에 이어서

음식이 에피타이저로 다양하게 나오고 각종 그릴 요리도 제공되지만 한인들에게는 전주비빔밥이 가장 반가운 메뉴일 것이다. 메뉴에는 없지만 손님이 원한다면 전주식 콩나물밥도 주문 가능하며 무밥도 곧 신메뉴로 공개될 예정이다.

알링턴에 거주하는 정 씨는 “뉴욕에서도 찾을 수 없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전주 전통 비빔밥을 맛본 것 같아 기쁘다” 며 “다음 번에는 전주식 콩나물밥도 꼭 먹어보고 싶다” 고 전했다. 아울러 개업 소식을 들은 정 씨는 “전통 전주 비빔밥을 맛볼 수만 있다면 뉴햄프셔에서 가까이 찾아 오겠다” 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라현정 사장은 “한국에서 전주비빔밥 명인 허 이상 선생님을 모시면서 7개월 동안 배우고 비법을 전수받았다” 고 전했다. 맛의 비법에 대해 라 사장은 “일반 식당의 비빔밥은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 버터나 식용유를 돌솔 밑바닥에 칠하지만 이는 전혀 한국적이지 않은 방식” 이라고 지적하며 “육수로 밥을 짓고 소독 기능이 있는 놋그릇에 담겨 나오는 것이 진정한 전주의 맛” 이라며 자부심을 보였다.

날계란과 육회가 본래 전주비빔밥의 묘미지만 이곳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달걀 프라이와 소고기, 돼지고기, 해물, 두부 등으로 대체한다.

직접 담근 깔끔한 밑반찬과 놋그릇에 정갈하게 담긴 소고기비빔밥이 나왔다. 육수로 코팅된 밥알이라 그런지 젓가락으로 살살 저으니 부드럽게 잘 비벼진다. 양념의 자극적인 맛 없이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나는 것이 일품이다. 시원한 콩나물국과 함께 먹으니 건강하고 맛있는 한끼 식사로 든든하다.

에피타이저인 불고기버거와 감자고로케가 예쁘게 담겨 나왔다. 떡꼬치와 맛탕 같은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에피타이저 메뉴로 구성되었다.

개업한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일 이곳을 찾는 단골손님들이 있다. 매번 다른 음식을 시도해본다는 인근 무술도장 사범 찰스 데버질리오(Charles DeVirgilio)는 비빔밥과 오이소박이를 가장 좋아한다고 전했다. “비빔밥에 올라간 야채는 각각 다른 식감으로 식욕을 돋운다” 며 “이곳에 우리식당이 생겨 기쁘다” 고 전했다.

어머니, 남동생과 셋이서 요리부터 경영까지 하



는 라 사장은 “변하지 않는 맛을 내는 가족적인 식당이 되는 것이 경영 철학이자 철칙” 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인지 음식부터 실내 분위기까지 단란하고 가족적인 느낌이 물씬 풍긴다. 그녀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고 한국 전통 음식을 세계화하는 것이 목표” 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리식당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연다. 일요일은 오후 4시 30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dyoo9146@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겠습니까?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형락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lo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세청	617-536-7469
남서명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00-235-6426
백배지역	888-477-6721
보스턴공립학교	617-345-7958
보스턴수도	617-635-9000
보스턴시청	617-989-7000
보스턴총영사관	617-635-4500
사우스익	617-641-2830
사회보장국	617-345-7958
성폭행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시간문의	617-492-8300
아동보호	617-637-123
아동학대	617-748-2000
알고음/마약	800-792-5200
여성학대	617-445-1500
운전면허	617-248-0922
펠러버	617-351-4500
자원봉사	617-348-8500
적십자	800-522-8086
전화신청 (Verizon)	800-564-1234
전화교정신청 (Verizon)	800-941-9900
텍스	617-555-1515
AAA	617-343-4475
FBI	800-222-4357
MBTA	617-741-5533
NSTAR가스	800-392-6100
NSTAR 전기	800-572-9300
RCN케이블TV/전화	800-592-2000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	603-89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주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617-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협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학회	774-270-1948
베링햄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학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가톨릭	
구세군 몰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몰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트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도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978-869-2596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톤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의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리살림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이 벨렐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교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종은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770-2755
617-441-5211	

꽃	
미스티학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 금융/투자

인덱펀드(투영목)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스파이낸스	617-799-6158

###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라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킴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이 벨렐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교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종은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770-2755
617-441-5211	

###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대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티학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 금융/투자

인덱펀드(투영목)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스파이낸스	617-799-6158

###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라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킴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이 벨렐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교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종은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간병인 구합니다  
8pm - 8am 까지 주 5일  
T. 781-883-7970 (오후 5시이후 연락)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벌링톤 물안 헤어약세사리 가게  
풀/파트타임 일하실 분  
T. 312-350-0159

**Boston HTPC**

데스크탑, 랩탑PC 수리  
맥북, 아이맥 수리 및 윈도우설치  
각종 데이터 복구 및 백업  
인터넷 연결 및 공유기 설치  
TEL 617-645-8885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렉싱턴 한식/일식 식당  
풀/파트타임 웨이터/웨이트레스구함  
T. 781-860-0171

세탁소 팝니다. 부유한 동네 Drop-Store  
관심있는 분 연락 바람  
T. 857-636-2611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N [매 매] 세탁소매매**  
건물+세탁소(33만불)  
.9년간 같은 주인경영  
.경쟁자 없음  
.살기좋은 백인동네  
.미독립기념일 1주간 문닫고 휴가  
.은퇴관계로 매매  
.Chatsworth, GA(Dalton근방)  
T. 706-980-9510 Mr Kim

**N [매 매]**  
슈리페어,알터레이션 샵  
이주 관계로 급매 하고저 합니다  
미드타운에 있는 고급동네이며 70년  
전통있는 가게 입니다  
일감이 많은 바쁜 가게 임  
자세한 사항 문의는 연락 주세요  
T. 404-751-8889

**N [마사지구인]**  
만테나 빌링스에서 가족같이 일하실 성  
실한 마사지사 구합니다.  
안전한 곳이고 숙식제공 되고 수입 보  
장 함.  
T. 406-259-6211

**N [구인]**  
노스 다코타 인테리어 휘니시 기술자  
구합니다.  
인테리어 휘니시,케비넷도어, 트림, 유  
경험자 환영.  
미네소타&노스다코다 지역 포함.  
T. 952-292-6090

**N [구인]**  
한식당주방장과 부주방장 구합니다  
작은 동양 마켓안 한식당 주방장과 보  
조 각 1명씩 더 모집니다  
현재 주방장 보조 서빙 2명 디시워셔  
하시는분 일하고 있음  
식당테이블 17개 주 6일 근무, 주일은  
쉽니다(인수가능)  
Warner Robins GA I-75 EXIT 160근처  
T. 615-714-8016

**N [구인]**  
시카고 지역에서 일하실 사이딩쿠루 구  
합니다.  
T. 847-307-1812

**N [구인]**  
하와이에서 제일 안전한 맛사지 가게에  
서 함께 일하실 아가씨를 구합니다  
월수입 3만 - 5만 가능 신분 확실한  
분  
T. 1-808-675-1022

**N [호텔직원구인]**  
사바나지역(Savannah, GA)  
.룸서비스(여자)  
.하우스맨(남자)  
.오버나이트서비스맨(남자)  
.게스트서비스맨(남자)  
.전직원 숙박제공  
시간당 \$9.50부터  
주 40시간제  
T. 678-689-7751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 '슈퍼스타K6' 김무현 PD "곽진언, 오디션 이후 활동 기대된다"

(서울=뉴스1) 명희숙 기자 = 김무현 PD가 참가자 곽진언의 음악성을 칭찬했다.

김무현 PD는 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M센터에서 열린 Mnet '슈퍼스타K6'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TOP11 참가자들은 능동적이고 재능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곽진언의 경우 생방송 미션을 치루는 게 아쉬울 만큼 좋은 자작곡들이 많다"며 "오디션이 끝나고 곽진언의 자작곡이 담긴 앨범이 발매되길

기대한다"고 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처음 곽진언의 자작곡을 들었을 때 머리속으로 수 십명의 아티스트가 머리속을 스쳐갔다"며 "생방송에서도 그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슈퍼스타K6'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인가수를 발굴하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 방송.

reddgreen35@news1.kr



## 선·정혜영 부부, 결혼 10주년 '밥퍼' 봉사활동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가수 선과 배우 정혜영 부부가 결혼 10주년을 맞아 '밥퍼' 봉사활동을 펼쳤다.

선은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혼 10주년인 오늘 혜영이와 작년 결혼기념일 다음날부터 매일 만원씩 모은 365만원을 들고 '밥퍼'의 어르신들을 뵈러 찾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혼 1주년 때 일년 동안 모은 365만원을 들고 처음으로 '밥퍼'로 찾아가서 드리고 하루 동안 봉사하

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혜영이가 했던 말, '작은 걸 드리지만 큰 행복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그렇게 '밥퍼'를 찾아가는 게 올해로 10번째라며 "하루 만원의 나눔이 씨앗이 되어 우리 가정에 여러 나눔의 열매로 큰 행복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선은 "하루가 지나 내일이 오늘이 되면 나의 오늘을 그렇게 또 살아갈 것이다. 내일부터 내년 결혼기념일에 '밥퍼'에 드리고 가져올 큰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나눔, 만원의 행복은 시작된다"고 전했다.

한편 선은 9일 특별한 콘서트를 개최한다. 삼성 전자 서초 사옥에서 열리는 '더 웨딩 콘서트'를 통해 200쌍(400명)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실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이 필요한지 강연을 할 계획이다. 선과 정혜영 부부의 봉사 활동을 접한 누리꾼들은 "선-정혜영, 훈훈하다", "선-정혜영, 멋있다", "선-정혜영, 뿌듯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미생' 강소라 "직장인들, 을에 가깝더라"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기자 = 배우 강소라가 직장인의 애환을 토로했다.

강소라는 6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tvN 새 금토드라마 '미생'(극본 정유정/연출 김원석)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촬영하기 전 실제 직장인 체험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배우들과 달리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상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래 상대국의 시간의 맞춰 일해야 하기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하루종일 휴대 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더라"고 설명했다.

강소라는 또 "제가 생각한 직장인의 모습보다 훨씬 활동적이고 사람을 상대하는데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상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갑이 아니라 을에 가깝더라"고 덧붙였다.

강소라는 극 중에서 종합상사 자원 3팀 신입직원 안영이 역을 맡아 연기한다.

'미생'은 바둑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장그래(임시완 분)가 프로임단에 실패한 후, 냉혹한 현실에 던져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오는 17일 첫 방송. reddgreen35@news1.kr



## 내한 머라이어 캐리, 최악의 공연? 무엇이 문제였나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내한 머라이어 캐리의 공연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팝 가수 머라이어 캐리는 지난 8일 오후 8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롯데월드몰 어메이징 콘서트 머라이어 캐리 내한공연'을 개최했다.

머라이어 캐리의 내한은 11년만으로, 국내 팬들은 그의 입국 전부터 많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내한 공연이 베일을 벗은 당일 머라이어 캐리는 20여분 지각했다. 그럼에도 팬들은 오랜만에 한국을 찾은 머라이어 캐리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내며 변함 없는 지지를 보였다.

그러나 공연이 계속될수록 전성기 때의 머라이어 캐리와 그의 돌고래 창법을 기대한 관객들은 예상 밖의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머라이어 캐리는 공연 중간 가사를 잊어 노래를 얼버무리고 코러스에 의지하는 등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몇몇 관객들이 공연장을 빠져나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마지막 곡인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를 부를 때는 별다른 인사도 없이 퇴장했다. 관객들이 앙코르를 외쳤음에도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팬들의 원성을 샀다.

머라이어 캐리의 내한 공연에 관객들은 "내한 머라이어 캐리, 기대가 컸는데 이게 뭔가요", "내한 머라이어 캐리, 단순히 컨디션 난조 문제였을까",

"내한 머라이어 캐리, 공연 괜히 다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4년 9월 29일 ~ 10월 5일

**1위**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  
33.6%



**2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24.7%

**3위** KBS1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20.0%

4	MBC	주말특별기획(마마)	18.7%
5	KBS2	아시안게임2014여기는인천축구(결승한국:북한)	17.8%
6	KBS2	일일드라마(빠꾸기둥지)	17.1%
7	KBS2	해피선데이	15.9%
7	KBS1	KBS9시뉴스	15.9%
9	SBS	아침연속극(청담동스캔들)	14.6%
10	SBS	정글의법칙(솔로몬)	13.9%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4.99에 볼 수 있는 앤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트	소유, 권순일
02	그게나야	김동률
03	손대지마	에일리
04	신촌을 못가	포스트맨
05	소격동	아이유
06	당신만이	곽진언의 2명
07	독기	아이언
08	내 사람	김동률
09	예뻐졌다	박보람
10	공허해	WINNER

## 숫자 퍼즐 (Sudoku)

		4			8			
	3						2	
			7	3	2	5	8	4
7	9		8					
1	4	8				9	5	3
					1		4	8
4	5	7	1	2	6			
		2						1
			9			4		

10월 12일 - 10월 18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b></p> <p>● 운수: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는 후회를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 금전: 차분하게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흥분할수록 이득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 애정: 말 한마디라고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긴 세월동안 살았던 부모도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2, 16일 길일, 14, 17일 주의.</p>	<p><b>소띠   동전의 양면처럼</b></p> <p>● 운수: 어느 한 면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동전의 양면처럼 보고 있는 반대편의 다른 모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금전: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애정: 더 이상 미련을 갖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3, 17일 길일, 15, 18일 주의.</p>	<p><b>범띠   적합한 타이밍이</b></p> <p>● 운수: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람에게 적합한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얻는 것이 크게 다르게 작용합니다. 남동쪽으로 움직이면 얻는 것이 크겠습니다. ● 애정: 때로는 숨기거나 감추기보다는 가감 없이 속 에 있는 말을 꺼내 놓는 것이 좋은 해결책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4, 18일 길일, 13, 16일 주의.</p>
<p><b>토끼띠   진심을 보여주어야</b></p> <p>● 운수: 새로운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처럼 멈추어 있다가 기름이 채워지니 다시 뿡뿡 달리게 됩니다. ● 금전: 새롭게 개발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반응이 좋으니 금전적인 이득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애정: 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좀처럼 곁을 주기 않아서 힘들었던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5, 18일 길일, 14, 17일 주의.</p>	<p><b>용띠   미리 알려주는 전조가</b></p> <p>● 운수: 모든 일에는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전조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뿐입니다. ● 금전: 이득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지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메마른 계약은 가급적이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애정: 혹시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있군요. 아까운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6, 17일 길일, 15, 18일 주의.</p>	<p><b>뱀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b></p> <p>● 운수: 무조건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하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 금전: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보니 돌아오는 결과 때문에 느낄 실망감도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애정: 만남의 헤어짐을 반복하게 되는 갈등의 시기에 들어갑니다. 하루에 여러 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4, 17일 길일, 16, 18일 주의.</p>
<p><b>말띠   넉쿨째 굴러 들어오는 호박처럼</b></p> <p>● 운수: 진정한 성공은 넉쿨째 굴러 들어오는 호박처럼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땀 흘려 얻은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 금전: 금전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 애정: 두 사람 사이에서 사랑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 있겠습니다. 좀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5, 18일 길일, 14, 17일 주의.</p>	<p><b>양띠   붓물 터지듯 한꺼번에</b></p> <p>● 운수: 이대로 놔두면 호지부지될까 걱정이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결국 자신이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자신이 모르게 돈이 세어나가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원인을 찾아서 더 이상의 출혈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 애정: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이 붓물 터지듯 한꺼번에 다 터져 나옵니다. 더 이상은 어렵다는 판단이 들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3, 14일 길일, 15, 18일 주의.</p>	<p><b>원숭이띠   이 순간을 즐기는</b></p> <p>● 운수: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일단 된다고 믿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금전: 자신을 위한 지출을 과감하게 해보세요. 미래를 위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가면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 애정: 없는 시간이라도 만들어서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하도록 하세요.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2, 17일 길일, 13, 18일 주의.</p>
<p><b>닭띠   중립을 지키는 것이</b></p> <p>● 운수: 세 사람만 우겨대면 어느 호랑이라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꼭 옳은 것도 정답도 아닙니다. ● 금전: 물건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 등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길 것입니다. ● 애정: 서로가 고집을 피우니 가운데서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2, 13일 길일, 14, 18일 주의.</p>	<p><b>개띠   혼자서 결정하려 하지 말고</b></p> <p>● 운수: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결국 문제가 되니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손해 보는 쪽으로 따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혼자서 결정하려 하지 말고 믿음만한 사람과 상의를 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보이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을 뿐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4, 16일 길일, 12, 15일 주의.</p>	<p><b>돼지띠   타협하는 것이 필요</b></p> <p>● 운수: 신념을 지키고 원리원칙에 충실한 것도 좋지만 때로는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금전: 금전 융통이 되면서 한 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심하던 끝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 애정: 자식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항우장사처럼 굳세고 힘이 강해도 자식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5, 17일 길일, 13, 18일 주의.</p>

## 김동률 콘서트, 2분만에 1만석 매진 '막강 티켓 파워'

(서울=뉴스1스포츠)장아름 기자 = 가수 김동률의 단독 콘서트 전석이 단 2분 만에 매진됐다.

8일 오후 8시 하나프리티켓을 통해 단독 오픈된 2014 김동률 전국투어 콘서트 '동행' 서울 공연 티켓 3회 공연 1만석이 모두 매진됐다.

김동률의 콘서트는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오르며 김동률 콘서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특히 예매 사이트 하나프리티켓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김동률은 지난 1일 3년만에 정규 6집 '동행' 앨범을 발표하고 각종 음악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번 앨범에는 '고백', '청춘' (feat.이상순), '내 사랑', 'Advice' (feat.존박), '그게 나야',

'퍼즐', '내 마음은', '오늘', '그 노래', '동행' 으로 총 10곡이 담겨 있다.

김동률의 이번 서울 공연은 오는 12월 12일부터 14일 까지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총 3회에 걸쳐 열린다.

aluem\_chang@news1.kr



## 유노윤호와 열애설 서예지는 누구? 감자별 2013QR3 출연

(서울=뉴스1스포츠)온라인뉴스팀 기자 =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28)와 배우 서예지(24)가 열애설을 부인한 가운데, 서예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서예지는 2013년 SK텔레콤 CF로 데뷔했으며, tvN 시트콤 '감자별 2013QR3'에서 노수영 역을 맡아 장기하와 호흡을 맞췄다.

또한 최근 이준익 감독의 신작영화 '사도'에 캐스팅돼 촬영을 마쳤다.

특히 서예지는 지난 2013년 KBS 연예대상에서 유재석으로부터 "CF와 시트콤을 통해 주목 받은 신인이다. 정말 예쁜 것 같다. 그냥 예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예쁜 것 같다"는 칭찬을 들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한편 9일 한 매체는 연예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유노윤호와 서예지의 열애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유노윤호와 서예지의 소속사는 "두 사람은 같은 드라마에 출연하는 동료 사이일 뿐이다.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두 사람은 MBC 월화드라마 '야경꾼 일지'에 함께 출연중이다.

## 20대 신민아 VS 30대 신민아

(서울=뉴스1스포츠) 이경남 기자 = 신민아는 1998년 패션잡지 키키 1기 전속모델로 데뷔했다. 15세 중학생이었던 신민아는 또래에 비해 월등히 긴 팔다리와 웃을 때 속 들어가는 보조개가 인상적인 개성 있는 마스크를 지닌 모델로 여학생들의 워너비로 떠올랐다. 모델로 승승장구하던 중 본명 양민아에서 신민아라

는 예명을 사용하며 배우로 변신했고, 영화 '화산고'와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에 출연하면서 스크린과 브라운관의 블루칩으로 성장했다.



드라마 '때려', '이 죽일놈의 사랑', 영화 '달콤한 인생', '미녀와 야수'와 각종 CF를 통해 신민아는 범접할 수 없는 '여신'으로 자리잡았다. 이승기와 손잡은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에서 백치미 넘치는 구미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대중들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오는 8일 개봉을 앞둔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1990년 이명세 감독의 동명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영화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결혼을 소재로 다룬 로맨틱 코미디다. 신민아는 극중 애교 넘치고 사랑스럽다가도 때론 잔소리를 퍼붓는 현실적인 아내의 모습을 소화하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10대 모델 시절 개성 있는 마스크를 지닌 독특한 매력의 소유자, 20대는 화보와 광고 속 모습을 통해 여신으로 대중의 사랑 받았던 신민아가 어느덧 데뷔 16년 차에 접어들었다. 30대에 입문한 그는 여신 이미지를 벗고 편안

한 사람으로 대중과 다가서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자신의 실제 성격이 가장 잘 녹아든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배우로 우뚝서길 기대해본다.

lee1220@news1.kr

## 천지보살

운명사주  
궁합  
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i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 〈김씨의 뿌리(16)〉

## 곽거병과 연지의 유래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중국 섬서성 흥평현 남위향 도상촌에 한무제 무덤의 배장묘인 곽거병의 묘

### 〈표기장군(驃騎將軍)과 곽거병(霍去病)〉

평양공주 집의 하나 위은(衛嫺)이 정계라는 자와 사통하여 위청을 낳았는데 위은은 위청을 낳기 전에 이미 위유, 위자부라는 딸과 아들 두 명을 두고 있었다는 얘기를 전편에 한 바 있다.

당시 한무제와 황후 진야교 사이에는 소생이 없었고 둘 사이의 관계도 소 닭 보듯 하는 사이였다. 그래서 한무제는 쓸쓸함을 달래려고 누이 평양공주 집에 자주 들르곤 하였다.

마침 평양공주 집에 노래 부르는 가기 위자부가 한무제의 눈에 들어 아들 유거(劉據)를 낳게 되자 한무제는 진야교 황후를 내치고 위자부를 황후로 하였다. 이를 계기로 평양공주 집의 하나 위은의 소생들이 모두 출세를 하게 되었다. 위청이 태중 대부가 되고 위청의 배다른 첫째 누이 위유는 태부 공손하에게 시집가게 되고 둘째 누이 위소아는 진장(陳掌)이라는 사람과 살고 있었는데 진장도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 위소아가 진장과 살기 전에 곽중유라는 사람과 사통하여 낳은 아들이 곽거병이었다. 위청은 곽거병의 외숙이 되는 셈이다. 한마디로 위은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소생들이 콩가루 집안 식구들이었다.

곽거병은 위황후 조카라는 위세로 나이 18세에 벌써 황제의 시중(侍中)이 되었다. 말 타고 활 쏘기에 능해 대장군 위청에게 종군하였는데 위청은 곽거병을 표요교위(嫖姚校尉)로 임명하였다.

원래 표요는 날쌔게 비행하는 새를 일컫는데 이는 곽거병에게 매우 적합한 말이었다. 곽거병은 첫 출병에서 800명의 기병을 이끌고 수 백리를 진격하여 흉노 2천명을 사살하고 포로를 잡아 즉시 관군후(冠軍侯)라는 제후로 봉해졌다가 곧 표기장군(驃騎將軍)으로 임명되었다.

BC121년 곽거병은 1만의 기병을 이끌고 농서로 진군해 대승을 거두었다. 흉노 선우는 좌현왕인 혼야왕(渾邪王)이 여러 차례 전쟁에서 패하자 좌현왕과 우현왕인 휴저왕을 불러 죽이려 하였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좌현왕과 우현왕이 한나라에 투항하려 하자 한무제는 곽거병을 보내 그를 맞이하게 하였다. 마지막 순간에 많은 흉노군이 투항을 거부하자 곽거병은 흉노군 8천명을 사살하고 수 만명의 투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흉노는 기련산(祁連山)과 언지산(焉支山) 일대를 한나라에게 빼앗기고, 이 과정 중에 우현왕 휴저왕이 사살되고 그의 부인 알지와 아들 김일제, 김륜은 한나라군의 포로가 되었다. 한나라는 이곳에 무위(武威) 주천(酒泉) 두 군을 설치하고 중국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다.

위청은 겸손하고 매사에 조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곽거병의 성격은 제멋대로였고 거침이 없었다. 전쟁을 할 때도 고대 병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한번은 한무제

가 손오병법을 곽거병에게 가르치려고 하자 그는 단번에 거절하였다. “전쟁은 계획과 책략이면 충분하오니 고대병법은 배울 필요는 없사옵니다.”

이토록 병법을 모르는 장군이 상승장군이 된 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곽거병에게 한가지 취할 점이 있다면 그는 언제나 국가의 대업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무제가 곽거병을 위하여 집을 짓다가 곽거병을 불러 미리 보여주었다. 그때 곽거병이 “흉노를 멸하기 전에는 집을 세울 수 없사옵니다.” 한마디에 황제의 은총을 물리쳤다.

이광과 위청은 수하에 거느린 병사들을 사랑하고 아꼈지만 곽거병은 정반대였다. 진중에 양식이 충분해도 그의 병사들은 배불리 먹지 못할 때가 많았고, 병사들이 먹지 못하고 지쳐있을 때도 임시로 구장(球場)을 짓고 공을 차게 해서 유희를 즐겼다.

정도를 벗어나는 기행을 즐기는 사람은 일찍 죽는 경우가 많다. 곽거병도 예외가 아니었다. BC 117년에 겨우 23의 젊은 나이에 그는 오염된 물을 마시고 요절해 버렸다.

무제는 그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기련산(祁連山)의 모양을 본떠 그를 위해 무덤을 지어 주었으니 지금 그의 묘는 한무제의 무덤 무릉 곁에 김일제, 위청의 묘와 함께 배장묘로



평안도 강서 수산리 벽화에 연지로 단장한 고구려 여인.

남아있다.

중국 섬서성 흥평현(興平縣) 남위향(南位鄉) 도상촌(道常村)에 이들의 무덤이 있다.

### 〈연지(燕脂) 끈지의 유래〉

한나라 곽거병(霍去病) 장군이 김일제의 부왕, 휴저왕에게서 빼앗은 언지산(焉支山) 일대는 휴저왕의 본거지였다. 여기서 더 서쪽에 있는 기련산 지역은 흉노족들이 대단위 목축을 하던 지역이며 동서교역의 젖줄 silk road가 시작되는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

곽거병의 공격으로 휴저왕은 사망하고 그의 두 아들 일제(日磾)와 윤(倫)은 어머니 알지와 함께 한나라 군의 포로가 되었다.

수많은 흉노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쫓겨나면서 암담했던 그들의 심경을 토로했던 슬픈 노래가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다.

실아 기련산(矢我祁連山)

사아육축불번식(使我六畜不蕃息)

실아 언지산(矢我燕支山)

사아부녀무안색(使我婦女無顏色)

그 내용은 기련산을 빼앗겨 우리 가축들을 키우지 못하고, 언지산을 빼앗겨 우리 아녀자들 얼굴 화장도 못 시키네, 라는 뜻이다.

흉노족의 근거지 언지산(焉支山)에는 홍색(紅色) 염료와 화장품 연지의 원료가 되는 홍화(紅花)가 많이 자라서 산 이름을 언지산(燕支山)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

홍화는 일명 홍람초(紅藍草)라고도 부르고 우리 말로는 잇꽃으로도 부른다. 예전 이집트에서는 홍화로 물들인 분홍색 천으로 미라를 싸매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연지를 처음 사용한 유래는 BC1150년 중국 주왕 때 요사스런 여인 달기가 연나라에서 가져다가 사용했기 때문에 연나라 연자를 넣어 연지가 되었다고 한다.

정작 연지가 여인들의 화장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한무제가 흉노로부터 언지산을 빼앗은 때로부터였기 때문에 연지의 유래는 흉노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중국에서는 궁정의 궁녀들이 월경이 있을 때는 홍화에서 만들어진 붉은 연지를 얼굴에 묻혀서 “죄송하지만 지금 생리 중” 이라는 말을 입금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는데 나중에는 연지가 여염으로 퍼져 월경의 유무에 상관없이 연지를 볼, 입술, 손톱 등에 칠하는 화장술이 보편화 되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경우 평안도 강서 수산리 벽화와 용강 쌍영총 차마 행렬도 벽화에서 볼과 입술에 연지를 바른 여인들을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 중 담징이 일본에 연지를 소개한 것으로 미루어 삼국시대 때 한반도에서도 연지를 사용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 나라현에 있는 다카마쓰 고분 벽화에는 고구려 의상을 입은 여인들이 연지로 화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흉노 언지산에서 출발한 연지가 중국, 한반도, 일본으로 전파 보급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나라현 다카마쓰 고분 벽화에 고구려 의상을 입고 연지로 화장한 여인들

REFRIGERATOR MANUFACTURER  
**Turbo air**

## 직원 모집

세계적 상업용 냉장고 생산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터보에어 그룹에서  
성실한 서비스 테크니션을 찾고 있습니다.

냉장고 수리 경력자나 전기 기능사를 우대하며  
“관련분야의 관심과 재능있는 분”은 3개월 기술 교육 후  
현장에 배치합니다. 기술을 습득하시면 어떤 불황에도 걱정없이  
안정적인 미국생활이 가능한 직종입니다.

근무지역 : Boston, MA / Pittsburgh, PA / Denver, CO / Orlando, FL

특전 : 건강보험 (Medical, Dental, Vision), 보너스, 유급휴가, 이사비용 지급, 관련분야 공대 졸업자 영주권 신청가 .

연락처 : E-mail. kyle@turboairinc.com / Phone. 310-900-1007

### Turbo Air Group

**Turbo Air, inc.**

**Texaking, Corp.**

**German Knife, Corp.**

**Premiere, Corp.**

**Turbo Air Cond., Corp.**

**Sungwoo International, Corp.**

**Turbo China, inc.**

**BFC Investment LLC.**

**Turbo Charitable Foundation**

Oakland



Hawaii



Seattle



Houston



**World Headquarters - Long Beach, California**

Dallas



Chicago



Atlanta



Miami



Cincinnati



New Jersey



Pittsburgh



Kwang-Ju, Korea Plant



Texas, USA Plant



Qingdao, China Plant

[www.turboairinc.com](http://www.turboairinc.com)  
800-627-0032



## 한담객설閑談客說: 명품 가을, 명품 보스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어제 내린 보스턴 가을비(雨)는 조용했다. 가는비細雨 였는데, 차가웠다. 나무는 소리 내서 낙엽을 떨구지 않았다. 가을비를 빌려 이파리를 뭉텅 떨어뜨렸다. 오메, 단풍지겠네. 지난달 광화문 글판이 바뀌었다.

어느날 나무는 말이 없고  
생각에 잠기기 시작한다.  
하나, 둘  
이파리를 떨군다.

(황인숙, 광화문 글판, 2014년 가을)

소설 첫머리는 늘 그랬다. 그게 통속적이려면 더 하다. 어딘가 서글프고 우울한 가을날 이어야 한다. 을씨년스런 오후즈음 일게고,

도로변에 맞닿은 작은 찻집이 적당하다. 비라도 얼핏 흠뻑리는 날이라면 더욱 그럴싸하다. 작은 문을 열면, 찬 바람이 은행나무 낙엽 몇 조각과 빗물기를 데리고 들어 온다. 바바리 코트에 얹힌 물방울을 털고, 안개낀 안경을 벗으며 자리에 앉는다. 난로 위 물주전자에선 김이 힘있게 솟아난다. 지난 며칠간 보스턴 날씨가 마냥 그랬다. 더운 커피를 잡아 당기는 계절이다.

내 입맛과 주관에 따른 상대성이론이다. 보스턴 사과(apple)는 어느 지역 사과보다 달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집사님을 따라 애플 픽킹에 갔던 적이 있다. 알이 너무 굵어 베어물 수 없었다. 사각거림이 지나쳐, 빙수 얼음을 씹는 듯했다. 당도糖度는 또한 말해 무엇

하랴. 하긴 사과는 아삭아삭 씹는 맛이다. 작년 이맘때 돌아간 최인호 작가의 표현이다. 나이 든 여인의 피부를 말했다. '깎아 낸지 몇시간 지난 사과같다.' 누렇게 변해 버린 과육이고, 시들해져 풀죽어 주글해졌다는 말 일게다. 보스턴 사과는 깎아냈다고 해도, 몇 시간이나 신선도를 쉽게 유지할 지도 모른다. 보스턴 명품사과는 보스턴을 닮았다.

어디 사과뿐이라. 지난주 실린 보스턴 아트 뮤지엄과 유길준 선생의 피바디 박물관, 게다가 월든폰드, 그리고 미니트맨 트레일. 찰스강 건너편 엠아이티쪽에서 바라본 다운타운 모습도 빠질수 없다. 뉴잉글랜드 사과마냥 늘어 보이지 않는다. 유명 대학교에 다니는 이들이 모두 젊은 청년들이기에 그런가.

보스턴은 명품도시이고, 젊은 도시임에 틀림없다. 지난주 졸문과 같이 실린 보스턴 도심지 스카이라인 사진 또한 명품 아니겠나.

보스턴은 가을도 명품이다. 단풍과 어우러지면 절경이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가을 햇빛이 내리 쬐면 내리 쬐는대로 눈부시게 아름답다. 가을이 너무 짧으게 흠이라면 흠이다. 젊은 시절은 짧다.

'농부는 땅이 귀중한 소출을 낼 때까지 끈기 있게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야고보 5:7, 공동번역)

## 신영의 세상 스케치

468회

### 가벼우면 흔들린다

"모든 물건은 가벼우면 움직이고 무거우면 가만히 있다. 도(道)는 움직이는 사물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무겁고 고요한 것이라 한다. 무거우므로 모든 가벼운 사물을 실을 수 있고, 고요하므로 모든 움직이는 사물을 지배할 수 있다. - 최태웅의 《노자의 도덕경》 중에서 -

시월 초사 흔 날에 받아본 고도원의 아침 편지의 내용이다. 참으로 귀한 글을 마주하며 잠시 생각에 머물러 본다. 가끔 만남의 자리에서 생각 없이 쉬이 내뱉는 가벼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 인생에 대해 알 듯 모를 듯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돌씩 마음에서 어슬프지만 깨달음으로 다가온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말의 깊이와 갈피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말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비중은 자신이 선택해야 할 몫이며 책임지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말하는 사람의 말보다 듣는 사람이 가려서 들어야 할 말의 몫은 더욱이 그렇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욱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눈에

보인다고 다 볼 것이 아니고 귀에 들린다고 다 들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이가 어려서는 어려서 그렇다는 이유라도 될 테지만, 세상 나이 지천명을 오른 이 나이쯤에는 이제 그 나이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뜨여 해안이 열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누구 때문이 아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아직은 부족한 모습이지만, 자꾸자꾸 나를 흔들려 보고 털어보는 것이다.

이제는 삶의 중심점을 제대로 정하고 흔들리지 않을 자리에 굳건하게 있을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 부모님과 자식의 중간에 있는 지금의 나는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길지 않음을 알기에 더욱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부모 앞 자식의 자리도 그러하거나 자식의 부모로서도 그렇게 살아야겠기에 나 자신을 가끔 둘러보는 것이다. 자식을 여의어야 하는 나이쯤에는 더욱이 그런 마음이 든다. 이 세상 어느 부모도 자식을 향한 마음은 같은 마음일 것이다. 혹여 부모의 부덕한 모습으로 자식에게 흠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자식에 대한 예의이고 책임인 까닭이다.

자신의 길에서 열심히 살고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걷고 있다면 최선의 삶이고 최고의 인생이 아닐까 싶다. 이제는 그 어떤 관계에서도 양이나 숫자가 아닌 서로의 마음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닐까.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듣고 공감하는 서로에게 삶의 깊이를 나누며 감동으로 마주하는 벗이 곁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축복 된 삶일 게다. 서로 눈에 보이는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이다. 마음으로 깊이 서로 공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가벼울 리 없고 믿음이 중심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까닭이다.

그 누가 뭐래도 자신의 자리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더욱이 그렇다. 자신이 중심이 된 자리에서는 더욱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그 주변의 것들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가정에서는 가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형제 중에서는 맏이가 제대로 잘 설 수 있어야 든든하다. 그 가정과 형제·자매들의 우애를 보

듬어 쌓아올릴 수 있는 이가 바로 아내이고 엄마인 것이다. 가정에서 안주인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은 참으로 인내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더욱이 중심의 중심점이 바로 아내이고 어머니라는 생각을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만큼 생긴 대로 산다고 한다. 그런데 때로는 덩치값 못하고 사는 이들이 몇 있다. 외모로 보이는 풍채는 넉넉하고 점잖은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을 보면 참으로 실망하기 그지없을 때가 있다. 남의 말을 쉬이 뱉어낸다가 흥을 본다든가 하는 모습은 그 앞에서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깨어버리는 허점(단점)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가벼우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 마땅하다. 때로 살다 보면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을 해명이라도 하고 싶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을 열게 되면 변명 같아 초라해지고 흔들린 마음에 더욱 가벼운 모습이 될 때가 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제 6 탄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면 윤곽술, 안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잘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행사기간 2014년 8월 ~ 11월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안면거상술 (얼굴)

~~700~~ 만원  
**400** 만원

안면거상술 (목 포함)

~~800~~ 만원  
**500** 만원

실루엣 리프트

~~300~~ 만원  
**200** 만원

안면윤곽술 (광대)

~~450~~ 만원  
**350** 만원

안면윤곽술 (사각턱)

~~450~~ 만원  
**350** 만원

안면윤곽술 (턱끝)

~~450~~ 만원  
**350** 만원

## 수술보증제 아시나요?

병원마다 수술 잘 한다하죠?  
그런데, 수술보증은 왜 해주지 않나요?  
기술이 아주 뛰어나야 보장할 수 있겠죠?  
한국성형외과는 국내 유일 수술보증서를 발급하는 병원입니다.

세계최초 가슴코젤 배꼽 삽입 수술 개발  
국내 제 1호 치과교정 거의없는 양악수술  
국내 제 1호 양악수술 성공 병원

반영구화장 독일 롱타임라이너 입점  
SPA에스테틱 미국 더말로지카 입점



www.hankukno1.com  
**한국성형외과 韓國整形外科**  
HANKUK PLASTIC SURGERY

**AM 09:00 ~ PM 11:00**  
365 ALWAYS OPEN / TEL : 02.555.7772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형편에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하라**

미국에 와서 모기지(Mortgage) 라는 말을 배우게 된다. 모기지 시장은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마련한 미국 고유의 제도. 성격으로 봐서 한국에서 집을 살 때 주택은행에서 해주는 장기 주택대출자금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금융기관마다 주택 모기지 상품이 천차만별이다. 상환 기간과 이자율 차이도 크다. 차분한 검토 없이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집을 차압 당할 수도 있다. 개개인의 형편에 적합한 모기지 상품 선택 기준을 알아본다.

**주택 융자의 유통 과정**

초기 이민자들에게 가장 인상 깊은 것 중 하나는 미국에선 적은 돈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집 장만이 수월한 것은 모기지 बैं킹(Mortgage Banking)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모기지 बैं킹의 핵심은 자금 유통에 있다. 쉽게 말해 ‘노는 돈’ 을 끌어보아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주는 사업이 모기지 बैं킹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제이라는 사람이 20만 달러의 주택 융자를 ABC Mortgage Company에서 받았다면 ABC는 제이에게 20만 달러를 자체 보유 현금으로 건네주거나 다른 곳

# 모기지 기초 상식

에서 빌려와야 한다. 그런데 1월 한달 동안 제이와 같은 사람 100명이 ABC로부터 융자를 받아간다면 ABC가 충당해야 하는 자금은 2천만 달러에 달한다. ABC가 자체 현금을 모두 동원해 융자해 줬다면 다음달인 2월에 필요한 자금을 또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ABC는 1월에 펀딩 했던 융자 서류들을 2차 모기지 시장에 팔아 넘겨 2천만 달러의 현금을 다시 찾게 된다.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 해주던 재할인 제도와 유사하다.

2차 시장에서 ABC와 같은 홀세일 모기지 렌더(Wholesale Mortgage Lender)들로부터 모기지를 매입하는 기관은 주로 General Motors, Chase, Citi Group, 생명보험회사처럼 거액을 움직이는 대기업들이다. 그들은 손님의 예치금이나 저금리 단기 융자로 싼값에 자금을 동원해 모기지를 사들인 다음 페니메이(Fannie Mae), 프레디맥(Freddie Mac)과 같은 모기지 전문 투자 그룹에 팔아 넘긴다.

페니메이는 원래 연방정부에서 주택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보증을 서 왔으나 90년대 후반 주식 시장과 동시에 민간기업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공기업인 지니메이(Ginnie Mae)에서 발행한 채권은 아직 연방정부가 보증을 선다.

페니, 프레디, 지니는 증시의 힘을 빌려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 그들은 자체 어음을 발행하거나 주식 발행으로 모은 자금을 모기지 매입에 사용한다. 또한 이들도 자금 회

전을 위해 모기지를 매각한다. 엄청난 자금을 들여 사들인 모기지를 만기 별로 분류하거나 적절히 배합해 종류별로 한 장당 1천 달러짜리 채권으로 전환,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 금액별로 다양한 채권을 만들어 유통하기 쉬운 단위의 유가증권으로 만들어 파는 것(securitization)이다. 채권 소유자들에게 지불되는 이자는 매달 들어오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사용한다.

앞서 예로 든 제이는 ABC라는 회사에서 융자를 받기는 했지만 그 돈은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빌려준 돈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401K, 생명보험, 뮤추얼펀드 등 간접 투자 채널을 통해 주택 채권을 매입했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채권에 투자한 돈이 제이에게 돌아간 것이다. 어쩌면 제이가 배달 불입하는 은퇴 연금이 제이에게 돌아간 것인지도 모른다.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모기지 융자를 받아 본 사람 대부분이 은행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은행이 바뀌는 것이라기보다는 페이먼트를 처리하는 서비스 회사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맞다. 주택 구입자에게 융자해 준 은행은 그 모기지를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이익을 붙여 2차 시장에 넘겼고 2차 시장에서는 역시 이익을 붙여 페니메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팔아 자금을 환원시켰다. 페니메이에서는 역시 채권으로 이익을 남기며 투자자들에게 모기지를 다시 팔아 넘긴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2차 시장에 넘기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모기지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그런 은행을 포트폴리오 렌더(Portfolio Lender)라고 부른다. 포트폴리오 렌더들은 페니메이나 프레디맥에서 사들이지 않는 독특한 모기지 프로그램이나 변동 이자, 또는 은행에서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기지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융자를 해준다. 결국 주택 융자는 유통 서비스 비즈니스다. 주택 융자를 받기 위해 자기 은행을 찾아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향후 모기지 बैं킹의 성패는 군살 없는 유통 구조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가격 경쟁과 소비자 신뢰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51 무예도보통지의 마상육기馬上六技(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하지만 마상에서 더 날렵하게 실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짐작된다. 중국의 창보다 짧았지만 ‘삭’ 으로 불렸으며 ‘오례의五禮儀’ 에 나오는 창은 10척으로 기창보다 더 짧으며 검은 색이나 붉은 색을 칠해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창끝날의 길이는 1척5촌(약 45cm)으로 예리하게 양날을 하고 있다. ‘경국대전’ 에 보면 비슷한 길이의 창으로 25보씩 떨어져 있는 허수아비 3개를 찌르는 무과시험의 과목 체계가 실어 있다. 그리고 무예도보통지와 비교해 보면 치고 찌르는 기창의 자세와 동작이 차이가 있다. 즉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창술의 발달로 볼 수 있는 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창의 무게가 무려 30근(약 18kg)이기에 마상에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으며, 무예도보통지에 이르기를 무거운 창 때문에 “무사로서 사용자가 심히 드물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창편(무예도보통지)에는 ‘산해경’ 을 비롯한 많은 중국의 고서들을 참고하여 창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나무들을 소개하였다. 재미나는 부분은 나무의 종류를 비교하면서 당시 사회에서 백성들이 널리 사용했던 속된 말(俚言)도 볼 수 있다. 자세히 살피고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실수를 저지른다는 뜻인 “박달나무를 베려 했는데 잘 살피지 못해 쥐엄나무를 얻어왔다” 는 말이 향간에 나돌았음을

볼 수 있고, 박달나무와 쥐엄나무가 가래나무와 느릅나무와 더불어 잎이 쌍쌍으로 대칭이 되어 있어서 아주 분간하기가 어려움도 볼 수 있다.

또한 ‘무편’ 을 인용하여 위지경덕(慰運敬德84) 과 제왕(齊王 원길元吉(당 고조의 아들) 간의 삭(마상 창술) 겨루기를 소개하며 위지경덕의 탁월한 기창술을 보여 주고 있다.

기창의 교전보는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나란히 섰다가 갑자기 먼저 말을 몰아 150보에 이르러 말을 되돌리면 을이 말을 몰아서 서로 만나 창을 들어 한번 부딪치고, 각각 오른쪽으로 쫓아 스쳐 지나 오른쪽을 돌아보며 바꾸어 제자리에 이른다. 다시 말을 몰아서 서로 만나 이같이 하기를 세번하여 갑이 을을 쫓아 서로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면 붙잡히거나 혹은 묶이거나 혹은 겨드랑이 끼이거나 하여 말을 달려 제자리에 돌아온다.

그리고 처음 말을 타고 나갈 때는 신월상천(新月上天勢(오른손으로 고삐를 잡고 왼쪽 겨드랑이에 창을 간다)를 취하며, 다음에는 오른손으로 앞창자루를 잡고 왼손으로는 뒤창자루를 잡는다. 그 후 오른손, 왼손을 바꿔 잡으면서 좌전일자세, 우전일자세, 좌후일자세, 우후일자세 등으로 하면서 농창세(弄槍勢(일종의 기만 전술)를 취하면서 정수 없이 여러 차례를 반복한다.

82) ‘무예제보’ 와 ‘무예신보’ 에도 각각의 기법을 그림으로 그린 바 있지만 보군步軍은 한 장에 한 면이나 두 면, 또는 세 면이나 네 면으로 사람 수가 일정하지 않아 규명하는데 혼란스럽다.

83) 무예도보통지와 ‘무예도보통지 실연완역’ (임동규 주해, 학민사)을 참고했다.

84) 위지경덕은 본래 봉기를 일으킨 송금강의 수하였으나 당태종 이세민에게 투신해 당나라의 개국공신이 되었다. 사람됨이 경솔하고 방자하였으나 강직하고 충성스러웠다. 중국에서는 도교 및 민간에서 그를 신격화하여 무신(武神)으로 여기고 있다. 당정관 19년(645년), 당나라의 위지경덕에 의해 요양시 광우사가 중수되었으며, 후금9년(1635년) 광우사 중수비의 기록에도 동한시기에 건립되어 당의 위수경덕이 중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수 많은 전쟁터에서 당태종 이세민의 목숨을 구했으며 ‘삭(마상 창술)’ 의 달인이었다. 약 5.5m의 창을 들고 전속력으로 돌격하여 적을 찌르고 적의 창을 뺏는 ‘마상탈삭’ 이라는 기술을 쓰면서 가히 당할 자가 없는 신출귀몰하는 무사였다. (제다이 위키 참조 - ko.jedi.wikia.com)



#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수술, 재건, 성형
- **암통합케어센터**  
원스텝 진단에서 치료까지
- **자궁근종센터**  
수술없이 자궁근종 치료
- **심혈관·뇌졸중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24시간 진료
- **척추·관절센터**  
무릎, 어깨, 허리, 비수술 통증치료
- **내시경센터**  
위암, 대장암, 내시경 치료



**617-583-2993**  
www.newyjh.com

###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00만원 / 여: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남: ~~80만원~~ 60만 / 여: ~~85만원~~ 70만원  
 당일 종합검진 남: ~~55만원~~ 45만 / 여: ~~65만원~~ 55만원

### 진료과목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영상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암통합케어센터, 심혈관·뇌졸중센터  
 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재활치료센터, 응급의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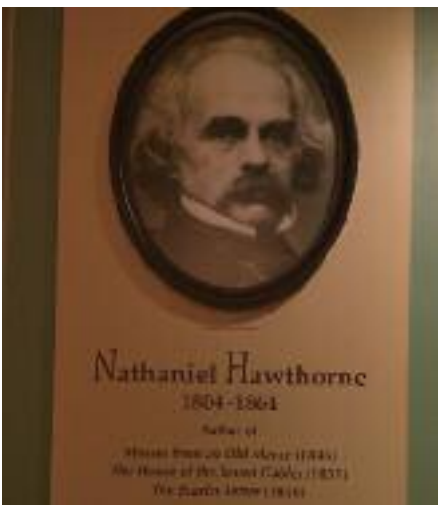


독자기고  
김철

## Sleepy Hollow의 세 현자(賢者) (2)

(지난 호에 이어)

호손은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이름이다. 그의 대표적 단편소설인 '큰바위얼굴(The Great Stone Face)'을 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바 있기 때문이다. 그 소설의 배경이 된 바위(Old Man of the Mountain)는 뉴햄프셔주 캐논산(Cannon Mountain)에 있었는데, 2003년도에 자연적인 붕괴로 인하여 얼굴 모습의 바위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한다. 호손은 이 밖에도 수 많은 단편소설을 발표하였는데, 호손이야말로 단편소설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고 찬사를 받고 있다.



호손의 최고 걸작은 역시 '주홍글씨'이다. 주홍글씨는 지금도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고전소설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주홍글씨의 출간으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문학적 식민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하여 호손을 미국 문학의 효시로 존경하고 있다. 호손은 이 소설을 통해서 청교도의 위선적인 행태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청교도 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은 집안 내력과 관련이 있었다. 17세기 말 악명 높은 '세일럼 마녀 재판'을 맡은 판사 중에는 호손의 조상(William Hathorne)이 있었다. 당시 종교 박해를 피해 신대륙에 멋진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던 이민자들은 오히려 150여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마녀로 몰아 죽이거나 잡아들이는 과오를 범했다.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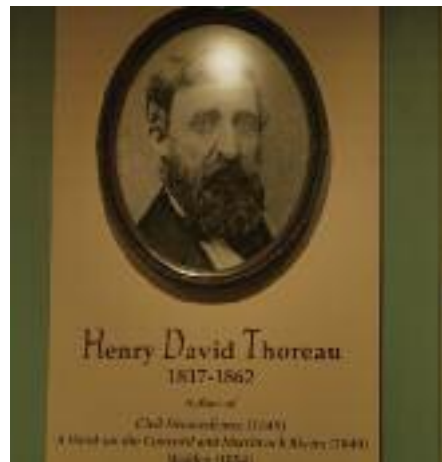
만 아니라 그 조상은 원주민에 대한 박해에도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다고 한다. 호손은 이 사실을 두고두고 가문의 수치로 여겼다. 조상에 대한 반발 심리로 원래의 Hathorne에서 w를 추가하여 Hawthorne으로 성까지 바꾸었다. 작가는 작품속 간통의 주인공에게 시종일관 따뜻한 시선을 보낸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간통은 떴떳한 행위가 아니고, 작품의 방향성은 여전히 논쟁거리다. 일부에서는 "청교도들의 순수성이 왜곡돼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호손은 이 작품에서 청교도의 이상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하던 초기 식민지 시절에 이미 청교도 목사가 간음을 범하는 등 위선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다. 청교도 사회의 엄격한 규율을 설파하는 목사가 바로 이를 무너뜨린 죄인으로 등장하는데, 그 처벌도 유럽 중세의 마녀재판을 방불케 한다. 17세기 중엽 뉴잉글랜드에서 청교도들은 유럽의 종교 광신자들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호손은 생각했다. 호손의 이 소설에서 가장 강렬한 이미지는 주인공 헤스터 프린이 청교도적 단죄인 주홍글씨를 버려도 될 상황에 이르러서도 스스로 달았고 다시 되돌아와서도 'A'를 다는 장면일 것이다. 그때, 'A'의 의미는 간통(Adultery)에서 능력(Ability), 사랑(Amour), 심지어 천사(Angel)로 변모된다고 비평가들은 해석한다.

소로(Henry David Thoreau)는 세 사람 중 가장 늦게 1817년 콩코드에서 태어나 하바드 재학시절을 빼고는 줄곧 콩코드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하바드에서 처음으로 에머슨을 만난 이후 에머슨에게 폭 빠지게 된다. 말하자면 소로는 에머슨을 멘토로 삼았으며, 에머슨 역시 소로의 스승이자 친구로서 소로를 끔찍이 사랑했다. 에머슨은 소로에게 집안관리자의 직책을 주어 경제적 걱정 없이 항상 에머슨 옆에 있도록 배려하기도 하였다.

소로는 그의 세계적인 유산인 '월든(Walden)'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이다. 그 책이 국내에서 열 개도 넘는 출판사들이 각자 번역본을 출판하여 경쟁을 벌인

것만 봐도 높은 인기를 가능할 수 있다. 그 책이 그토록 인기를 얻게 된 데에는 '법정스님이 사랑한 50권의 책' 중에 월든이 제일 먼저 소개된 점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법정스님의 무소유사상은 소로 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님은 생전에 월든호수도 세 번이나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로의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은 인도의 간디를 포함하여 수없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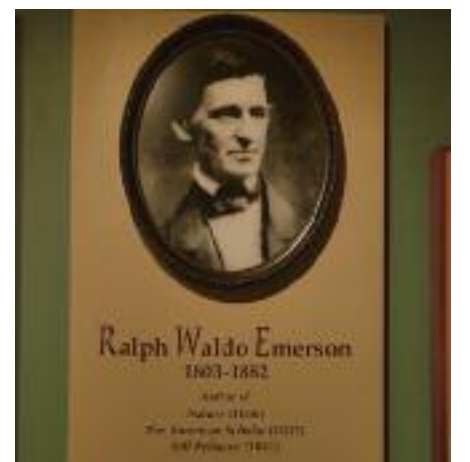


소로는 에머슨의 초절주의와 자연주의 철학을 몸소 실천에 옮겼다. 인생에서 실험을 높이 평가했던 에머슨의 가르침에 따라 2년여의 숲속 움막생활을 통하여 자연을 관찰하고 철학적 사유의 시간을 뺏속 깊이 경험하면서 후세에게 귀감이 될 큰 유산을 남기게 된다. 소로의 한 칸 짜리 오두막에 있는 살림살이라면 침대와 탁자, 책상, 그리고 우정을 위한 의자 세 개가 전부였다. 그는 그곳에서 낮에는 농사를 짓고, 자연을 관찰하며, 저녁이면 책을 읽고, 우주의 더 높은 법칙들에 대해 사색했다. 때때로 친구이자 스승이었던 에머슨, 호손, 채닝(William Ellery Channing)과 같은 이들과 우정을 만끽했다. 그의 삶은 관찰자로서 사색가로서 그리고 자연예찬자로서 자연과 환경, 지리, 경제, 역사 전반에 대한 탐색과 사색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었다. 그의 기록은 여러 자연의 소리들, 고독, 호수, 농장, 동물들, 난방, 과거의 거주자들과 방문객들, 사계절에 따른 변화 등에서부터

기독교와 불교, 유교, 힌두교 등의 고대 경전까지 그리스 로마 신화와 전설, 철학 등 방대한 양의 동서양 고전을 넘나드는 소로의 깊은 사유를 통해 구현되었다. 19세기에 쓰인 이 책이 20세기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끊임없는 불안과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이상향으로서 빛을 발하는 있으며, 특히 무한경쟁의 산업사회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힐링의 방편이 되어 주고 있다.

보스턴 시내 하바드의대 부속병원인 MGH 뒤쪽에서 North Station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소로 오솔길(Toreau Path)'이 조성돼 있다. 마음이 무거운 날이면 이 길을 걸으며 소로 생각에 잠겨 보면 작은 위안이 될 법하다.

다시 Sleepy Hollow 묘지 이야기로 되돌아가면, 이 묘지는 1855년 초절주의자가 중심이 되어서 조성되었는데, 초절주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준공기념식에서 에머슨은 기념사를 했으며 채닝은 그의 시 'Sleepy Hollow'를 낭송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소로도 이 기념식에 참석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나 호손은 리버풀 영사로 영국에 머물고 있는 까닭에 참석치 못하였을 것 같다. 에머슨, 호손, 소로 세 사람은 이제 월든 호수가 소로의 오두막을 떠나 이곳 작가의 언덕(Authors' Ridge)에서도 교류를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



행복한 미소가 그리우십니까?  
1st 초이스가 고객님의 미소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Special!

치아교정 무론상담  
(2013-10-31까지)

모든 진료를 편리하게 한곳에서!

- \*치아교정
- \*소아치과
- \*사랑니발치
- \*치아미백
- \*임플란트수술
- \*악관절(TMJ)
- \*보철/비니어
- \*수면진정마취
- \*신경치료
- \*3DX-Ray(CT스캔)

DENTAL

1st.CHOICE DENTAL

한국인 직원을 찾아주세요

781.273.2233

www.1cdental.com

H마트에서  
5분 거리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Dr. Jeong Sook Lee (장정숙 선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DDS/Ph.D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DMD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Practice limited to prosthodontics

Dr. Michael Kong (강철봉 선생) University of Pennsylvania,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Dr. Samuel Lee (이승우 선생) UCLA School of Dentistry,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perio, implant, & ortho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 Welcome, **TBO**

티보 개학기념 **학생할인**

# 폭탄세일!

# \$14.99

(2년 약정시)

## 학생 할인

2014년 9월5일-10월4일까지  
보스톤 코리아 티보가  
학생 여러분께 BIG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규가격 : \$34.99

###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4.99(2년 약정시)

###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2년 약정시)

### 3. 티보 런칭기념 특별할인 연장!

10월 30일까지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2년 약정시, 3개월 후 \$34.99로 과금)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617.650.6656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 양도소득세

## 한국의 양도소득세

이번주는 한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 세법에 열거된 자산만 양도소득세를 낸

한국의 세법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 ①토지, 건물,
-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③주식 또는 출자지분, 특정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 ④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등이 있습니다.

위의 ③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상장주식'(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대주주(유가증권시장 : 3% 이상 또는 시가 10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 5% 이상 또는 시가 50억원 이상)가 양도하거나 장외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일반 소액 개인투자자가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됩니다.

### 세금의 계산 방법

양도소득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X)	세율
=	납부할 세금

이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자산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양도차익의 일정율(보유기간에 따라 10% ~ 30%, 주택인 경우 24% ~ 80%)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자산은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미등기양도 부동산, 비상업용 토지, 국외 소재 부동산 등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대상이 아닙니다.

###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

1세대가 2년이상 보유한 1주택('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2년의 보유기간이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말하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보유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

의 거주자 상태에서 한국의 1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한국의 거주자로 1년 거주하여 총 3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자 상태에서는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는 ①토지, 건물,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 및 ④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모두 과세되나 상장주식은 양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의 발행주식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

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다만, 100분의 25미만 소유한 경우도 장외거래한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 한미조세조약상의 규정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세조약이 한국의 세법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세법에 비거주자의 한국내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조세조약에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한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주식을 예로 들면, 한국의 세법에 주식의 양도소득은 한국의 원천소득으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조세조약을 보면 당해연도에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지 않은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원천지국(즉,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한미조세조약 16조). 따라서 한국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한국에서는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한국의 세법에서도 한국에서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51)

# 액티브 펀드(Active Mutual Fund)의 진실

커피 전문점에서 라떼(Latte) 한 컵이 \$4달러입니다. 자장면 한 그릇 값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비싼 커피'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찰리 엘리스(Charley Ellis)는 미국 금융업계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분을 잠깐 소개하면, 76세, 예일 대학 기금(\$200억 달러)을 운영했던 회장, 그린위치 금융자문회사 설립자, 금융에 관한 책 16권의 저자입니다. "질 수뿐이 없는 경기에서 이기는 게임(Winning the Loser's Game)"이란 책이 팔렸습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은 꼭 읽어보아야 하는 책입니다.

이 분이 7/8월 재정잡지(Financial Analysts Journal)에 기사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주 내용은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 경비입니다. 뮤추얼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률 대부분이 펀드 경비로 부과된

다는 것입니다. 1980년부터 1990년 사이에 뮤추얼 펀드의 경비는 2% 정도로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뮤추얼 펀드에서 부과하는 경비에 비교하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뮤추얼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약 18%였기에 경비에 대해서 불평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평균 4% 정도이며 뮤추얼 펀드 경비는 평균 1.3%입니다. 그렇다면 수익에서 33%가 경비로 부과된 것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는 액티브(active) 펀드라 말하고 펀드 매니저가 없는 인덱스 펀드는 패시브(passive)펀드라고 구분해서 말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주식시장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수익률입니다. 500인덱스 펀드(S&P 500 Index)는 500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 주식시장의 80%를 대표하므로 주식시장 전체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는 인덱스 펀드와 경쟁합니다. 펀드 매니저는 인덱스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야 투자자가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액티브 펀드 A가 주식시장(인덱스) 평균보다 0.5% 더 높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주식시장(S&P 500)에서 나온 수익률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펀드 A가 부과하는 경비가 1.25%이고 인덱스 펀드의 경비가 0.25%라면 실제로는 0.75% 손실입니다.

위에 예는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높았을 경우입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액티브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은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보다 적다는 통계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엘리스는 결론과 함께 질문합니다.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언제까지 진실을 감추고 있

을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내용은 '우리가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지만, 인덱스만큼의 수익률을 창출하기 힘들고, 창출한다 해도 지속해서 할 수는 없다.' 여기에 펀드가 부과하는 경비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적을 수밖에 없다' 라는 고백입니다.

엘리스가 궁금해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언제 이러한 사실을 알고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중단하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부분 고등학교는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수업이 없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면 자기 전공만 공부합니다. 집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부모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뮤추얼 펀드회사는 막대한 돈으로 광고와 선전을 합니다. 뮤추얼 펀드의 좋은 면만을 과대하게 포장합니다. 뒤에 숨어있

는 진실을 일반 투자자가 알기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의 금융산업은 길게 잡아야 40년입니다. 이때 미국에 이민을 옵니다. 먹고사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문득 노후를 생각해 봅니다. 노후 대책 투자도 생각해 봅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재정설계사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합니다. 그래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뮤추얼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매니저 자신도 인덱스 펀드만큼 수익률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설계사가 유망한 뮤추얼 펀드를 선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정설계사는 뮤추얼 펀드를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를 형성합니다.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투자 방법입니다.



#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품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mailto:Happydolsang@gmail.com)

# MAKI MAKI

브라이트 대형 스시 뷔페 | Japanese Sushi & Seafood Buffet



스시 외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5년 이상 경력의 샐러드 전문 요리사 (Cold dish chef)를 구합니다

마키마키에서는 편안하고 기억에 남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뷔페스타일(all-you-can-eat)의 식사뿐만 아니라, 한정된 기간 동안 주문식 스시

(made-to-order) 스타일의 식사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주방장의 열정과 엄선된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다양한 일식 및 중식 요리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Lunch 10%

성인 3명 이하, 한 테이블에 쿠폰 한 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명 이상은 정상가격)

다른 할인이나 쿠폰 중복 사용 불가 / 공유일 사용 불가

유효기간 : 2014년 11월 6일까지

Dinner 15%

성인 3명 이하, 한 테이블에 쿠폰 한 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명 이상은 정상가격)

다른 할인이나 쿠폰 중복 사용 불가 / 공유일 사용 불가

유효기간 : 2014년 11월 6일까지

Cannot combine with other coupon and other promotions  
Not valid on weekend and holiday



## 매일 행운 추첨 무료 저녁 식사

매일 처음 10번째까지 고객에게 무료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저녁식사 시간에 레스토랑에 오셔서, 안내데스크에 무료저녁식사 추첨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10번째까지의 고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매일 두분께 당첨의 기쁨을 드립니다. (12세 이상의 참가자에 한함)

행운을 빕니다!

### Lunch

11:00am ~ 2:30pm  
Mon~Thur \$17.75  
Fri~Sun, Holiday \$21.75

### Dinner

Mon~Thur: 5:00pm~9:30pm \$28.95  
Fri~Sat : 5:00pm~10:30pm \$30.95  
Sun, Holiday: 4:00pm~9:30pm \$30.95

# 617.783.1888

304 Western Ave. Brighton, MA 02134  
[Makimakiboston.com](http://Makimakiboston.com)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많은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적어도 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시기가 올 때까지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지 모른다. 많은 대학교들이 학생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교양 수업을 마치고 전문적인 전공 수업으로 넘어가는 대학 3학년까지 전공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심지어, 전공을 한번 정한 학생들조차 그 반 수 이상이 다른 전공으로 전과하며, 그 중 꽤 많은 수는 전공을 두세 번까지 바꾸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렇다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모르기 때문에, 대학 입학 원서에 Undecided(전공 미정)라고 써도 되는 걸까?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는 학교 자체의 명성도 높지만, 특히 학부 레벨에서는 최고의 경영학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경영대인 Wharton School을 필두로, School of Arts & Sciences,

# 합격률에 영향을 주는 전공 선택

School of Engineering & Applied Sciences, School of Design, School of Nursing 등 여러 단과 대학이 종합 대학교인 유엔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유엔 학부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유엔 산하의 와튼 스쿨에 입학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대학 원서에서 Intended major(희망 전공)에 Business나 Management를 써야지, Undecided로는 와튼에 입학할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즉, 입학 원서를 넣을 때부터 여러 단과 대학교 중 하나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전공에 따른 단과 대학 별로 경쟁률과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입학 후에 '다른 단과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전공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 School of Arts & Science에 입학해서 Wharton School의 경영 전공으로 졸업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만약에 SAS에 입학한 뒤 나중에라도 경영학 전공을 하고 싶다면 Wharton으로 편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보통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고, 특히 경쟁률이 높은 대학으로 편입을 하고 싶다면 1-2학년 때의 성적도 매우 좋아야 하므로 쉬운 방식은 아니다. 결국, 유엔처럼 전공별로 단과 대학이 나뉘어져 있고, 특히 전공별로 경쟁률이 다르다면 희망 전공 선택이 합격률에 영향을 준다.

반대로 학부가 단과 대학으로 나뉘어 있지 않은 학교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서 합격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중

합 대학이지만 학부생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모두 'College'에서 공부하게 되는 하버드 대학이 그렇다. 전공별로 단과 대학이 나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희망 전공 선택이 합격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전공별 단과 대학이 나뉘지 않는 하버드나 다트머스 같은 학교, 심지어 모든 학생이 비슷한 교양 수업을 들으며 공부를 하는 Liberal Arts College라도 원서에는 희망 전공 선택 문항이 꼭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희망 전공과 연계해서 미래의 직업관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경우가 흔하다. 적어도 학생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고, 지금까지의 교과목 선택이나 과외 활동 이력 등으로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중에라도 의대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과 계통의 AP 과목을 더 많이 듣거나, 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이력이 스스로의 진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증명하기가 더 수월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 하버드에서 합격 통지를 받은 학생들 중에서 희망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Undecided로 표기한 학생은 8%도 채 되지 않았다.

사실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전공 지식과 졸업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사용하는 능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대학교 측도 이미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는 많은 학생들이 월스트리트 등의 금융계로 진출해 금융 분석가(Analyst)가 된다. 하지만, 여러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듯이, 취업 후 최소 반년 동안은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등 실질적인 업무 트레이닝 기간을 거치게 된다. 회사 입장에서조차 대 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을 곧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전공과 상관없이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문학을 전공하고도 금융계에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문직을 키워내는 의대나 법대 등의 전문 대학원에서 학부에서의 전공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대학 입학 원서를 작성할 때 적어 넣는 것은 단지 Prospective major(지망 전공), Intended major(희망 전공)일 뿐이다. 대학 생활을 하며 자신에게 더 알맞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찾을 수도 있고, 몇 년 간 간직해 왔던 꿈이 바뀔 수도 있다. 다만, 특정한 전공을 희망하고, 그 방법의 지식을 습득하고 싶다고 표기하는 행동은 학교 측에 대한 어필이다. 나에 대한, 그리고 내 열정에 대한.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로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4

(지난 호에 이어)

지난해 여름 방학 동안 스페인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저는 고등학교 때 라틴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선택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에 입학하자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외국어나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외국어를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라틴어 대신 새로운 외국어를 스페인어로 선택하여 공부하고자 하버드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스페인어 100레벨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첫 수업에서부터 너무나 큰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교수님도 학생들도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스페인어로 수업을 해서 학교 아카데미 어드바이저와 상담한 후 스페인어를 취소하고 한국어로 외국어 이수학점을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너무도 큰 상처와 자존심이 상해 1학년 마치고 아르헨티나로 교환학생 가는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스페인어 학점도 이수하고 언어도 더 배울 작정이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약 두 달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등록금과 생활비가 걱정이 되어 프로그램 담당자와 상의한 결과 비행기 요금과 용돈을 제외한 전액을 학교에서 지원해주어서 경제적인 부담없이 즐거운 경험을 하고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 다음 학기에 스페인어 2년차 수업을 무리없이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정말 많이 느낀 경험이었습니다." 학생의 경험담을 통해 하버드가

는 명성보다 하버드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 최고의 학생들로 만들고 미래의 리더들로 키우는지 알 수가 있다. 최고라는 명성 때문이 아니라 학생이 경험한 것처럼 좌절을 통해 주어진 리소스를 잘 활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학생들을 하버드가 선호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하버드는 유일하게 MIT에서 수강한 학점을 하버드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은 인정을 안 해준다. 심지어 AP과목도 학점 인정보다는 코스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정도로만 간주하고 있다. 예를 들면 AP 심리학에서 5점을 받은 학생이 만약 졸업 필수 학점 중 심리학을 수강 한다면 학점 인정보다 심리학 200레벨을 수강하게 하는 도구로서 AP학점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특정 교양 과목은 AP 5점을 학점으로 인정해주기도 한다.

하버드는 대부분의 전공이 강한 편이지만(공학 분야만 예외로) 특히 강한 전공으로는 경제학, 생물학, 행정학(Government), 영문학, 사회학(Social Studies), 흑인 연구(African American Studies), 동아시아 연구(East Asia Studies), 인류학(Anthropology), 음악(Music), 과학의 역사(History of Science) 등이다.

하버드가 공식적인 학위를 주는 단과 대학들은 총 12개이고 이중 학사학위를 하버드 칼리지(Harvard College)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대학원과 전문 대학원에서 수여한다. 하

버드가 제공하는 전공은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학교 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길 권한다. 이 지면을 통해 하버드의 단과 대학들만 살펴보자.

- 하버드 칼리지(Harvard College): 모든 학사(BA, BS)학위를 제공한다.
- 경영 대학원(Harvard Business School)
- 치의에 대학원(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 신학 대학원(Harvard Divinity School)
- 디자인 및 건축 대학원(Graduate School of Design)
- 공학 및 응용 과학 대학원(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
- 교육 대학원(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예술 과학 대학원(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
- 케네디(행정) 대학원(Harvard Kennedy School)
- 의과 대학원(Harvard Medical School)
- 법학 대학원(Harvard Law School)
- 보건 대학원(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2014-2015년도 아카데미 기간 동안 학부생 총 6700명, 대학원생 총 14,500명이 재학 중이다. 교수들은 총 2,400여명이었고 의과대학 연구

원과 교수들의 경우는 10,400여명이나 되어 실제로 하버드에서 교수의 직책으로 강의와 연구를 하는 교수들의 수는 무려 12,800여명이나 된다. 총학생이 21,000명으로 수적으로 볼 때 교수와 학생비율은 굉장히 낮다. 하버드에 재직 중인 교수님의 인터뷰를 들어보자. "하버드에서 강의 한지도 어느덧 16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학생들을 지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매우 많은 강의 준비를 해야 하고 동시에 리서치, 그랜트(Grant), 주기적인 논문 발표를 해야 이곳에서 생존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다른 대학들과 큰 차이 없이 교수직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장점은 이곳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덕분에 많은 분야의 메이저 학술지들이 이곳 하버드에서 출간되어 새로운 지식의 흐름과 연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 좋고 주변 교수들과도 공동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버드는 노벨상을 수상한 교수조차 일정부분 강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들이 자유로운 리서치 기회와 기금을 얻을 수 있어 강의도 중요시 여기지만 연구에 중점을 둔 대학이란 점이 타대학에 비해 좋은 장점입니다. 한 가지 강의 하면서 느낀 것은 하버드의 모든 학생들이 다 천재가 아니고 평범한 학생이 훨씬 많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하버드라는 대학 진학을 꿈꾸며 준비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란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정준기 원장 (보스턴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sup>TM</sup>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 POSPay



 Leaf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 (iPhone, Android)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39,000

동양 그로서리, 연매상 \$415,000 다운타운 보스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피자/델리/한식 성장가능성 많음. 연매상 \$330,000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북쪽 주유소+컨비니언스 (2 비즈니스), 연매상 \$1.4M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훌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140,000 Wash & Fold 많음 소유자 은퇴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 SAT I,II 주말 Intensive Class

### SAT I Class

1. 대상: 시험을 앞둔 10,11,12학년

### 2. 특징:

- 실전문제풀이 중심으로 다가오는 시험대비 및 최종점검
- 종일 프로그램(9:00-5:00)
- 4주 단위로 상시 등록가능
- 실력있는 강사(영문학 박사로 본원에서 4년 강의중)

### 3. 수업일정

9:00- 9:30 단어테스트  
9:30-11:30 class(reading/writing)  
11:30-12:30 점심식사  
12:30- 5:00 Full set 실전문제풀이

### SAT II Math II C Class

- 다년간 경험의 공학박사 강사
-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 2014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 1. 프로그램 일정: 11.22(토)~30(일)

(11.27일 추수감사절 당일은 휴강)

### 2. 프로그램 내용

- SAT I/SSAT/TOEFL Class(3명이상)
- SAT 2 Subject Test Prep (Math/Science/History/Language)
- All subjects for private tutoring
- National Contest Prep(AMC 10&12)

### 3. 프로그램 참가자의 숙식 및 교통편 알선

\*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 www.bostonedu.org

## 아카데믹 프로그램

### 1. SAT 1,2 /AP/SSAT/TOEFL 및 전 학과목 개인수업 가능

- 학생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 Skype수업 가능

### 2. Reading/Writing class

- 현직 영어교사 강의
-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 독서후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향상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